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18 1981년9월14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September 14,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2 3 1981

賣春行爲 적발

LAPD風紀단속반 「湖林莊」함정수사, 웨이트레스등 3명 체포

교포경영 나이트클럽·宿泊업소무대로 50~1백弗에 賣春去來

◇…한인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교포 웨이트레스 2명과 나이트클럽 주인등…◇
◇…교포 3명이 매춘행위를 단속중이던 LAPD소속 사복형사의 함정수사에 걸…◇
◇…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2일 하오 11시40분께 시내 호림장(주인·김동용·50…◇
◇…세 3840 Crenshaw Bl.)에서 교포 장경숙(29세) 여인은 매춘혐의, 또 종숙…◇
◇…로벗슨(30세)여인은 주류판매위반으로, 주인 김동용씨는 매춘알선 및 주류…◇
◇…판매법위반 혐의로 사우스·웨스트 경찰서 풍기단속반 수사관에 의해 연행…◇
◇…됐다. …◇

고객假裝한 搜査官에 하룻밤 花代 2백弗요구

3년전부터 한인타운 賣春행위 집중수사 계속

(LA)

사우스웨스트경찰서 쇼어스수사관에 의하면 이들은 이달 일반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하룻밤에 2백달러에 매춘을 흥정하던 끝에 걸려든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호림장 나이트클럽은 현재 「BEER & WINE」의 ABC허가규정을 위반 위스키등의 「하드리커」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쇼어스수사관은 이번 수사는 LAPD본부와 공동으로 수사했다고 밝히고 체포된 3명은 3일 하오, 장정숙씨는 1천달러, 종숙로벗슨씨는 5백달러, 주인 김씨는 2천3백50달러를 내고 각각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번 한인 매춘사건 수사는 지난 3년전부터 LAPD당국이 수사에 착수, 사우스웨스트 경찰을 비롯, 윌셔, 헐리웃경찰서등 총 10명의 수사관이 동원, 추적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러한 한인타운내의 매춘행위는 LA경찰국본부의 풍기단속과(VICE DEPT를 비롯 한인타운을 맡고있는 윌셔경찰서, 램파트경찰서 관계자들도 오래전부터 합동으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LAPD 풍기단속반 왐빌수사관은 『한인사회의 매춘행위는 주로 한인경영의 나이트클럽과 바등을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이 매춘행위뿐만 아니라 도박(포커판)까지 연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윌셔경찰서 멜라뉴란티 형사과장도 『현재 한인타운내의 매춘및 도박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 좀더 구체적인 방증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한인타운의 술집업소는 그내부에 주로 칸막이등을 비롯한 은밀한 장소까지 설치, 매춘과 도박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인업소들은 ABC당국으로 부터 허가받은 「BEER & WINE」판매허가로 위스키종류의 하드리커까지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찰에 의해 표면화된 한인사회의 매춘행위는 술집을 무대로한 매춘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고객을 끄는 단독 매춘, 최근 들어서는 적게는 2~3명, 많게는 1명의 포주밑에 7~8명의 조직집단까지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개가 20세 전후의 창녀들로 구성되고 있는 이들은 한인타운내의 모 숙박업소와 연결되어 주로 전화를 이용해 고객과 접촉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인 고객과는 전혀 거래를 피하고 있는 이들은 보통 50달러내지 1백달러선에서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한 매춘행위 혐의로 주인 및 교포여종업원이 체포된 호림장나이트클럽. 9일 하오 호림장은 문이 굳게 닫혀있다.

"정부와 협상"

폴랜드노조 방침

폴랜드 노동조합"솔리데리티"는 폴랜드 공산당 정부와의 비극적인 대립을피하기 위해서 당지도자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가지겠다고 천명했다.

"솔리데리티"지도자들은 7일 조합이 창설된 1년 후인지금 폴랜드내에 많은개혁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다.

제1차 노조 전국대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 노동조합은 각종 위협에도불구,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체로 부각되었다고말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정부와 조합은 폭력보다는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라고믿는다고 말했다.

동 보고서는 정부의 급속한 개혁의 실패를 비난하면서 노조는 저임금가족이 보호되고 대량적인 실업이 시정되는 조건하에서 정부주도의 경제회복 계획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한인회 새 임원진 구성

경로잔치 10월17일 예정

9일(수)하오 6시 뉴서울식당에서 한인회 새 임원진 구성및 임시회의가 있었다. 이날 14명의 신임원(한인회 간사포함)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인순 신임회장은 각 임원을 발표,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임원진 과 가진임시회의에서 박회장은 각부서장에게 내년도 각 부서별로 예산안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줄것을 요망했다.

금년도 계획행사중 경로잔치를 10월 17일(토)오전 11시 한인회관에서 열 계획이다. (행사중복시 10월24일)

이어 토의된 82년도 한인주소록 제작건(기획부주관)에 대해 곧 입찰공고를 실시키로 했다.

새로 임명된 각 부서장은 다음과 같다.

총무부장 : 신영식
기획조사부장 : 이장성
재무부장 : 김웅일
섭외부장 : 명노길
교육부장 : 송기선
체육부장 : 하주용
문화부장 : 장기철
차장 : 옥성빈
부녀부장 : 김옥자
사회봉사부장 : 변의섭
청소년지도부장 : 서만수
홍보출판부장 : 구본모

한·캐양국 전우애로 결속

동부4개주 한국참전용사회 결성

(오타와 이태은지국장) 오타와의 한국대사관은 지난 8월21~23일 노바스코시아주 트루로(Truro) 시에서 동부지역 4개주(뉴퍼운드랜드, 노바스코시아, 뉴브룬스윅,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 옛 전우애를 다짐하는 친한단체 결합대회를 가졌다

이로써 캐나다 전지역에 걸친 한국전 참전용사회 결성을 마무리짓게 됐다.

이날 모임에는 Doug Carter트루로시장을 비롯,오타와참전용사회 Andy · Mackenzie 회장, 한국참전 유족대표 Karl · Mackenzie 여사등 5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대회에 이어 트루로시 소재 빅토리아공원에서의 기장대를 앞세운 참전용사및 가족의 행렬, 야외예배, Flag Dedication을 가졌다.

이규현 대사는 14명의 참전용사에게 기념메달과 태극기를 증정했다.

기념식후 이대사 일행은 트루로시장을 예방하고 경찰에스코트를 받으며 시가행진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이날 하오9시 재향군인회관에서 허두기 무관 주관으로 「한국의 밤」 행사및 한국음식 피티가 열렸다.

이 피티에는 600여명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한국참전용사 앤디·맥켄지(좌)·이규현 대사·허두기 무관, 피터·맥스웰(우)씨. (Truro「위클리·레코드」에서)

◇행렬에 앞장선 기장대(트루로시)

◀금주의 행사▶ (9월14~19일)

〔편집자주 : 본사는 교민사회의 행사를 매주 월요일자에 종합게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행사를 간접지원키로 했읍니다. 종교단체의 정기적 종교집회는 본란에서 제외됩니다. 본란게재를 희망하시는 행사주관자는 전화 533-2361 김종환기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18일(금)하오7시, 고종옥수상집 출판기념회
프린스·호텔(프린스 볼룸센터)
(900 York Mill Rd. Don Mills)

하오7시 Y's Men월례강연회
연락처 : 536-1166

◇19일(토) 상오10시, 한인골프대회
캐슬모어 골프장 연락처 : 678-2444(Mr. 정), 489-0397(Mr. 김)

하오1시30분, 한카합동추석윷놀이
씨다브레도서관(545 Markham Rd. 스카보로)

하오7시, 사진촬영대회 시상식
한인회관(20 Mobile Dr.)
연락처 : 535-7772

연락처 : 863-0415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고부장 : 송 광 호
식자부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강 하 수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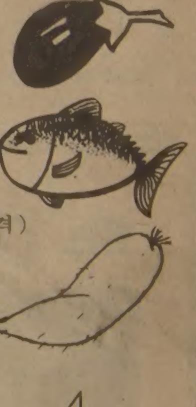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서울식품 "BIG SALE"

한국·미국으로부터 대량직수입 SPECIAL!! 세일기간 9월8일(수)부터…

		REG.	SPECIAL
●불고기등심	Lb.	2.59	2.20(10파운드제한)
●갈 비	Lb.	1.69	1.29(박스제한없음)
●소꼬리	Lb.	1.35	1.09
●참기름깡통(일본제품)		10.90	9.50
●한국농장용 배추, 무, 풋고추			농장가격으로 그냥 서비스
●명간장	1 gal		6.90
●양잠피	1 kg	2.25	1.80
●삼양라면	1 박스(50개)당15봉지 Free		
●삼양냉면	1 박스 5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청수냉면	1 박스 2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REG.	SPECIAL
●오징어젖	Lb.		80¢(특별가격)
●한국고추가루	Lb.	3.50	2.90
●어리굴젖	Lb.	4.90	2.90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디스카운트			
●쌀 : 미국에서 도착즉시 추가 세일할 것임			
●삿보로라면		13.90	11.50
●산요보온밥통		128.00(특별가격)	



주소 : 353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M5S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정다운 친구—오레곤주 세일럼에 사는 크리스틴 페티(4세)양은 개나 고양이보다 암소를 가장 좋아한다고.

이민자 평균 1만달러이상 휴대

한국 이민자금 현실화후 940만달러 환불

【서울】 최근 외국으로 이민하는 사람들은 평균 1만1천6백달러의 외화를 갖고 나가는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외환담당기관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정부가 이민정착금을 현실화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9백40만달러가 환불됐다.

새 이민법에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만으로 최고 10만달러까지의 이민정착금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피난민들 탈출 이민청문회 대기중

토론토공항근처 호텔에 감금중이던 인도 피난민 90명중 6명이 창문으로 도망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방안의 에어콘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이민국은 이들의 체포를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인도 동부지방에서 도망쳐 나온 시크족, 출신으로 시크족 독립운동자들이다. 이들은 추방에 앞서 이민성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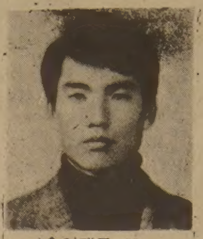
약2천명으로 추산되는 시크족 피난민들은 지난 봄부터 관광비자로 캐나다에 입국, 친척이나 친구의 보증으로 대부분이 풀려나 노동허가서를 받았다.

감금중 도망친 6명은 그동안 청문회날짜가 너무길고 음식과 삼엄한 경비등을 불평, 한때 단식투쟁을 벌였었고 이에 호응해서 그들의 친척, 친지들은 밖에서 데모를 벌였다. 이들은 인도음식 제공을 위해 인도인 요리사 채용등을 요구했다.

(단편소설)

상 주(喪主) ①

이 태 준(문협회원)



◇이태준 씨

춘자의 죽음은 우리 집안에 이상한 분위기를 몰고 왔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안절부절을 못하고불안스러워 하는 빛이 역력했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녀의 고향에서 올라온친척들의 표정도 하나같이 불만스럽고 어두운 빛이었다.

그녀의 시체를 안치한방에서 풍기는 역겨운 향내와 뒷뜰에 사자밥을 뿌려놓고 산발한채 괴상한 소리를내며 울고있는 춘자어머니의 모습은 거북스럽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있던우리집의 구석구석에 스산스럽고 암울한 죽음의 안개를 몰고왔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독자로 태어나 모든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소심했던 나는 춘자의 죽음으로 갑자기 뒤바뀐 집안의 분위기에 은근히 두려움을느끼면서 그녀의 친척들에게는 반항의 감정이 끓고있었다.

「우리가 죽인것도 아닌데 식모하나 죽은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떼거지들처럼 몰려와서 우글거리는지 모르겠네」노골적으로 그들의 귀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투덜대고, 집안을 휘돌아 다녔지만 이상하게도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석불같은 그들의표정은「저놈이 철이들려면아직도 멀었군」하고 상대도 해 주는것 같지 않아서 되려 내 스스로가 속이 뒤틀리고 울화가 치밀었다. 거기다 헝클어진 모습으로유난스럽게 나를 흘끔흘끔자주 쳐다보는 춘자 어머니의 모습은 보기 싫을 정도를 넘어서 징그럽고 소름이 끼쳐 나는 기회만 있으면 집을빠져나와 극장에서 오락장으로 전전하며 속히 그녀의 장례식이 끝나기만 바랐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숙을 생업으로 하는 어머니 밑에서 식모살이를 해 왔던 춘자는 나이가 사십이 넘도록 혼자살다 외롭게 죽어갔다.

어렸을때의 기억을 더듬으면 두어번인가 시집을 간다고 간단히 혼인식까지올리고, 한동안 살림까지 차렸던 것 같았는데 모두 몇달이 못가서 시집으로부터 쫓겨나 도로 우리집에 식모로 복귀하고 말았다.

춘자의 혼인식때 마다돈푼이나 흘렸던 어머니는춘자가 시집으로부터 쫓겨올때마다 눈과 입술에 날을 세우고 반격의 원정을 다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자가 시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을보면 춘자에게 시집살이를 못할무슨 결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춘자를 계속 식모로 쓰기위해 따지러갔던 어머니가 시내만 한바퀴 휘 돌다 와서 그러는 척만 하는건지 어린 나로서는 언뜻 납득할수가 없는 일이었다.

결혼을 그렇게 두번이나 실패한 춘자는 그후 괜히 하늘을 쳐다보고 우는 실성기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핑계삼아 그녀를더욱 천대하기 시작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㊼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훈 옮김

그러나 그들은 그 연약한 불이있는 텐트를 불이 전혀없는 눈으로된 집보다 더 좋아한다. 텐트에살면 적어도 이따금씩 더운 국이라도 먹을수 있지만 이글루로 옮겨가면돌처럼얼은 음식만 먹게된다. 때때로 남자들은 얼음을가죽주머니에 담아서 잠을잘때 몸의온도를 녹혀서 식수로 대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글루 밖에 부엌을 만들어 사용하는것이 사실이지만 눈으로 지어진 것이라 곧 녹아버려서 아주 잠잠한 날씨에만 사용할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씨는 밖에서 음식을 할정도로 잠잠해지지 않고 더욱이 늦은 겨울에는 나무들이 눈에깊이 파묻혀서땔나무를 찾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독자들이 상상할수 있듯이 겨울동안의 이할미우트집은 편하게 지낼수 있는것과는거리가 멀다.

이 땅위에 봄이다아와도 이 사정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봄에 텐트로 옮겨가면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다낮에는 비가 억수처럼 쏟아져서 텐트는 찬 빗물에 흠뻑젖고 물이 가죽위에 모였다가 텐트안으로 쏟아지면 그 안에있는 모든것이 모두 젖는다.

밤이되면 보통 서리가내리고 새벽녘에는 이불밑이외는 모두 얼어서 뻔뻔해진다. 봄철의 유기가 끝나자마자 뜨거운 햇볕이 텐트가죽을 북처럼 바짝말려오그라들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고생이 끝난것은 아니다.

아지랭이가 일렁이는 수없는 웅덩이에서 피를빨고 살점을먹는 파리떼가구름처럼 달려드는데 이할미우트의 텐트는 사이가 많이떠서 아무런 장애없이들어올수 있다. 이 텐트들은 사람과 파리가 공동으로사용하게 되며, 삼복더위쯤되면 파리가 없어져서 고생이 끝나게된다.

이 사람들을 높이평가하는 내식견은 그들의집을볼때마다 가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때로는나는 이할미우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현명하고 계략이풍부한 사람들일까 하고 의심을 해보았다.

내가 집을 생각할때는집의조건은 4개의벽과 지붕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할미우트의 집문제에 대하여 확실한해답을 얻기까지는 거의 일년이 걸렸다.

이들은 정말로 훌륭한집을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거의 완벽한집을 고안해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텐트와 이글루는 단지보조용 은신처였다. 진짜이할미우트집은 거북이처럼 생긴 것이었는데 그집을각자의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

사실 이러한 집만이 바렌의 평원에서 혹독한 기후에 사람이 살아갈수있게 만들었다. 이 집은 사람의 몸이라는 기름진 난로가본체가 되는데 우리백인들은 감히 흉내도 낼수없고 능가하지 못하는 완벽할 정도로 추위에 견딜수있는절연체를 갖고있다. 또한 이 집은 무게가 가볍고 만들기 쉽고 수선이 편리해서 완벽하다. 이집은 사슴을 통해서 이들에게준 이땅의 선물이다.

내가 이집을 생각해 내고는 이할미우트의 빈틈없는 교활성에 더 이상 의심할수가 없었다. 주로 이집은 두짝의 털을 서로 겹쳐서 사용자의 크기에 맞추어 정성들여 지어진다. 안쪽으로 들어간 짝패는털이 붙어있는 채로 안을향해맨살과 맞닿고, 겉의 짝패는 또 털이 달린채로 밖으로 향해서 추위를 막는다. 또 파카처럼 잡아올리면 머리를 덮을수있고 털바지와털장갑 털장화가 달려있다. 두겹으로된 옷은 머리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그리고 부드러운 토끼털로 안을깔아놓은 신발이 달려서 발끝까지 연결되어있다. 겨울에 신는 장화는 무릎위까지 올라와서 찬바람이 들어갈 틈이없다. 그러나 환기가 잘 되도록 파카가만들어져서 안과 밖의 파카는 입은사람의 무릎까지내려오도록 되어있으며 겨울에도 허리띠를 하지않는다. 몸안에는 더운공기가 있어서 찬공기가 파카를 뚫고 들어갈수 없지만 몸에서생긴 습기에찬 무거운 공기는 파카와 바지사이로 내려가 밖으로 내보내진다. 운동을 많이해서 땀을흘릴때에도 옷이젖어서 몸이얼어 죽을염려가 없다. 가죽은 몸에붙지않고 부드럽고 탄력성있는 털이 살갗과접촉이되며 털과 파카의 가죽사이에는 더운바람이 땀을 흡수해서 밖으로 내보낸다. (계속)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O.K. Auto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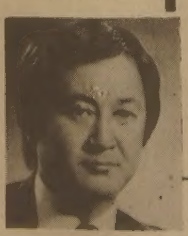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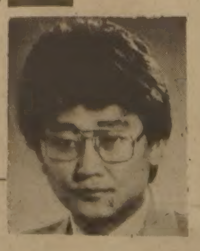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먼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먼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먼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사진촬영대회 시상식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열린 제6회 사진촬영대회 시상식이 다음과 같이 거행되오니 당일 대회 참여자는 물론 많은 사진애호가, 교민들이 참석하셔서 사진을 감상하시고 좋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시상자 명단은 이날 현장서 발표됩니다.

때 : 1981년9월19일(토) 하오7시

곳 : 한인회관(20 MOBILE DR. TORONTO. ONT.)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드림

The Korea Times Toronto

週刊한국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일간) No. 618 1981년9월14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September 14, 198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뉴스·안테나

◇10원만 집어넣으면 통화할수 있던 공중전화 요금이 10월1일부터 20원으로 오른다。

◇이란수상의 장례식에 1백여만명의 군중이 운집, 애도했다.

◇판문점 정전위에서 유엔군측은 北傀측에 卓上경고는 이번만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태풍 애그니스가 우리나라전역에 피해를 줬지만 중심권에서 벗어나 엄청난 피해는 면했다。

遞信

公衆電話料 10月부터 20원

체신부, 기계도 고치기로

도시의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공중전화요금이 오는10월1일부터 이제까지의 10원에서 배인 20원으로 대폭인상된다。

공중전화 요금의 인상은 ·지난6월1일 일반시내전화 도수료를 통화당 12원에서 14원으로 올릴때 이미 체신부와 경제기획원당국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승인된 것으로 그동안 그시행을 늦춰왔던것이다。

현행 공중전화요금은 지난77년1월1일부터 5원에서 10원으로 1백% 올렸었다。

공중전화는 1대에 월평균3천2백70통화꼴로 이용되고있다。 체신부는 올 상반기에 18억원의 공중전화 수입을 올렸다。

공중전화요금이 10원에서 20원으로 이번에 인상됨으로써 체신부는 전국에 있는 6만1천6백61대 (무인공중전화 1만4천2백75대, 관리인공중전화 4만6천9백40대)를 9월하순부터 10원짜리 동전 두개를 투입해야만 발신이 되도록 기계를 고치기로 했다。

본지「世界풍토記」사진

週刊新聞倫理委, 경고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本誌 1981년8월16일자 제1 4 2~1 4 5면에게재된「女子가 있는 世界風土記」제하의 사진에대해「品位損傷」및「品位維持」를 이유로 경고했다。

國際

反體制 억압 완화토록

이란指導者 호메이니 命令

이란首相室 폭발사건에 따라 더욱 강경해지는듯 보이던 回敎지도자 아야톨라·호메이니옹은 이란회교혁명정부에 반체제 인사들에대한 억압운동을 완화하도록 명령했다고 테헤란 방송이 보도했다。

호메이니옹의 이같은 유화적인 명령은 모하마드·알리·라자이 대통령과 모하마드·자바드·바호나르수상이 폭탄사고로 사망한 이래 이란 전역에서 암살과 폭력행위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서 나왔다。

수상등의 사망자 장례일인 지난달 31일에도 회교특별재판소 책임자인 호자톨레슬람·사에드·나세르·바니자말리와 재판소 경비원등 2명이 1백여만명의 군중들이 故라자이대통령과 바호나르수상을 추모하는 대규모행진을 벌이는가운데서 反호메이니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암살되기도 했다。

이란의 헌법 위원회는 대통령과 수상이 사망한후 대통령권한대행을 이란 임시 대통령위원회에 맡겼는데 대통령위원회는 하셰미·라프산자니 국회의장과 무사비·아르데빌리 대법원장등 2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국민투표선포권을 제외한 일체의 대통령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후임 수상으로는 호야톨레슬람·모하마드·레자內相이 임명됐다。

軍事

"美國 결의 誤判 말라"

유엔側, 北傀도발 强力 항의

西海연평도 상공에서의 美정찰기 SR71機 피격사건으로 열린 군사정전위 제407차 본회의가 지난1일 판문점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北傀측 韓桂庚은 유엔측의 엄중항의에 대해 도발한적이 없다는 전례적인 생떼만 부렸다。

유엔군측 수석대표 제임즈·G·스톰스3세 해군소장은 北傀의 美정찰기에 대한 공격과 함께 北傀機의 백령도상공 침범비행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그는 SR71機에 대한 공격행위는 명백한 정전행위반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며 침략적인 범죄행위라고 규탄, 앞으로 유엔군 통제하의 空域 어느곳에서 항공기에 포다시 공격을 감행하면 유엔군은 항공기와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北傀측에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자의 처벌과 적대행위 재발이 없도록 보장할것을 요구한 스톰스소장은 족다리부군에 위치한 미사일기지로부터 비무장정찰기에 대해 SA2 地對空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이때 정찰기는 北傀측 군사통제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4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氣象

中心圈 벗어나 큰被害 면해

颱風 애그니스、東海쪽으로

제18호태풍 애그니스(Ag-nes)는 다행히 그 중심권이 濟州서쪽해상을 거쳐 대한해협 포항쪽으로 빠지면서 약화되어 큰 피해는 면했다。

관상대는 濟州남쪽 약60~1백㎞해상을 통과, 계속 동북진하며 대한해협을 따라 빠져 우리나라 해안지방에는 그 중심세력이 상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관상대는 지난 1일하오 9시 현재 중국상해동쪽 약2백30㎞해상 (북위31도、동경1백24도)에서 매시25㎞의 속도로 움직이며 북동진으로 바꾸어 2일새벽 濟州근해까지 진출함에 따라 전국이 태풍영향권에 들었다고 했다。

이 태풍은 중심기압이 당초 9백50밀리바에서 9백60밀리바로 다소 약화되면서 중심최대풍속이 40m이며 반경 2백㎞내에서는 초속25m의 폭풍우, 반경 2백㎞에서 5백㎞내의 영역에서는 초속 15m의 폭풍우를 동반하고있어 濟州지방과 남해안지방은 지난 1일부터 태풍영향권에 들어갔었다。 지난달 30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 2일하오7시현재로 사망 2명, 실종 12명, 부상 1명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는 선박22척, 농경지2백16정보, 도로8개소, 하천4개소, 항만8개소, 어항5개소등 이다。

해외 걸작 만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의있읍니다。 검사가 지나친 방법으로 질문하고 있읍니다。

선생님, 인디언 놀이하는 개구장이를 못 보셨나요?

수줍은 열정 총각의 청혼。

DIPPER DAN
ICE CREAM SHOP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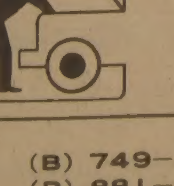
DIPPER DAN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이스크림회사로서 일본·미국등 350개의 Franchise가게를 갖고 있읍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20,000달러의 돈을 투자함으므써 아이스크림 비즈네스에 성공을 기약 할 수 있읍니다.

더 이상의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675-8930으로 전화하십시요.

DIPPER DAN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ARIO
TEL. 675-8930

NORTH YORK AUTO BODY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송 대 헌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偉大한 참으로 偉大한 로마

世界野性紀行

宋肅瑛 記

「로마를 보지 않고 로마를 말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한달 걸려도 제대로 못본다는 로마시를 1주일에 보고 가자니 자연 일류 투어가이드가 필요했다. 그 초특급 일류의 관광안내자가 바로 로마에서 5년간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미스터 정이었다. 그는 文學을 직업으로 하고있는 내가 꼭 구경해야 할 곳만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겠다고 했다.

「영화에서 본 「愛秋」 생각나시죠?」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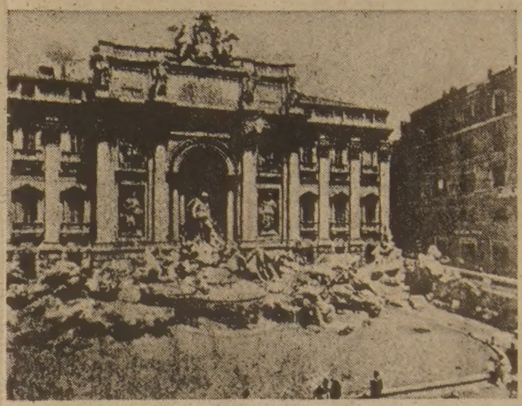
「그곳으로 가시죠.」

유서깊고 아름다운 분수가 있는 곳, 대리석 동상들이 인공의 분수속에 우뚝우뚝 솟아있다. 그런데 그 인공 연못 물속에는 동전이 꽉 차 있었다.

「왜 저렇게 동전이 꽉차 있어요?」

「행운을 비는 숱한 사람들이 동전을 던진 사람은 로마에 다시 올수 있다는 미신이죠.」

나도 거침없이 한개의 동전을 뒤로 돌아서서 분수로 던졌다.



◇로마의 名物인 토레비泉。연인들은 여기에 동전을 던져 행운을 빌곤 한다.

그 많은 동전은 3일에 한번씩 市廳에서 그물로 건져간다. US돈부터 세계 각국의 동전이 던져지는데 희귀한 나라의 돈은 수집가에게 팔고 나머지는 「애천」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고 했다.

로마에는 너무나 고적이 많다. 로마제국시대의 로마시는 신시가지보다 10m 가량 얕은데 그것은 구로마가 티베르강 유역 분지와 일곱개의 언덕에 발전했고 신시가지는 구로마를 둘러싼 약간 높은 지대에 성처럼 둘러싸여 발전해서 저지대 거의 전부가 구로마의 성곽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관광객들은 신로마시에서 묵으며 구로마를 구경해야 된다.

저지대의 구로마의 하수도(클로아카)처리는 몇백년전에 판 地下 펌프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저습지대의 취약점을 커버하고 있으며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은 이 구로마시가에 들어가 망연자실한 채 너무나 너무나 위대한 옛 로마시대의 건축·미술·공예·조각 등 고전 종합예술의 에센스를 구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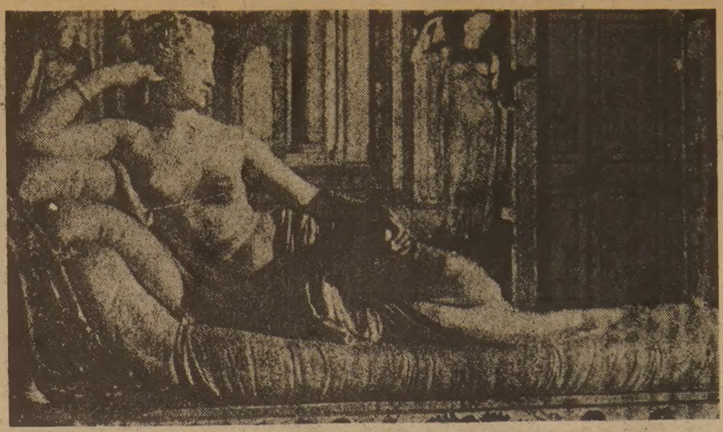
가장 아카데믹한 곳부터 구경시켜 준다며 시성 괴테와 시인 뒤세등 유명 예술가들이 다녀갔고 또였던 살롱(술도 팔고 티도 파는 집)으로 안내된다.

그 대리석의 테이블 위에는 유명 예술가들의 사인이 나서로 파여져 있는가하면, 유명 음악가들이 오선지 위에 습작한 곡들이 액자에 넣어져 벽에 걸려 있다.

시인 뒤세는 「그레코」의 단골손님이었는데 그는 언제나 구석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그 자리는 「뒤세의 자리」로서 하루종일 비지가 않는다. 가장 아늑한 구석자리다.

어째나 사람들이 많은지 한참 서서 기다려서야 「그레코」의 쓴 코피를 한잔 마실수 있었다.

순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을 얹은 코피인데 한잔에 7백원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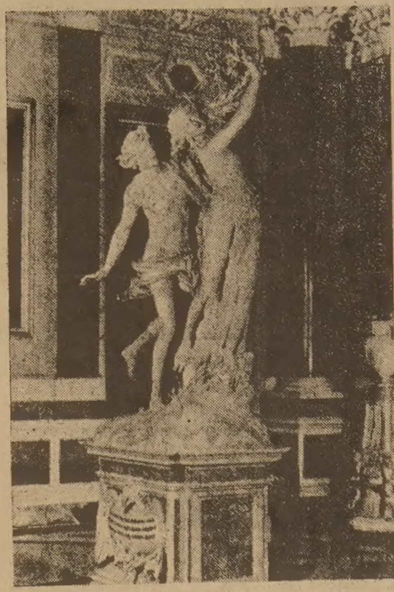
◇大理石으로 만든 아름다운 여신조각 파오리나 볼가스.

「이 코피집은 적자를 보아서 門을 닫게 된것을 市에서 매입해 경영하고 있읍니다. 서울의 명동 같은 곳이므로 한 코피만 팔아서는 수지가 안맞는다는군요. 市에서도 적자를 보지만 역사적인 名所를 보존하기 위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로마를 보지않고 말하지말라" 感嘆 못감춰

관광객이 아무리 많아도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비싼 술이나 여자가 없어서란다. 예술가들이 모이던 유서깊은 장소보다 예술가들이 아닌 관광객이 모이는 곳은 역시 술과 여자가 있는 카페인 모양이다.

예술인이 모이던 곳은 예나 지금이나 가난과는 가장 인연이 깊은 모양이다. 이곳에서 인도의 시인 한 영감을 만났다. 정확한 영국식 영어를 쓰는 그는 대학교수가 직업이란다.



◇아폴로像.

「선생의 나라 예술가들은 살기가 어떻습니까?」

「직업이 있어 가지고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죠. 文學家는 예술로 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게 좋아요.」

「文學은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겁니까?」

「사이드 잡으로는 훌륭하죠. 학교선생이나 은행원 또 자유직업을 가지고 文學은 긍지와 인내로 버티는 생명의 작업으로 하구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군요. 하긴 물질적 풍요의 잉여물로서 文化·예술이 창조되는 것이겠지요.」

영국에서 두개의 文學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는 그 인도 교수는 사리(인도민속의상)를 입은 부인과 더불어 世界文學紀行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탈리아의 피혁제품이 세계적이라기에 굽높은 구두와 예쁜 핸드백을 사서 들고 구로마의 중심지를 활보하는데 단구의 미스터 정은 나를 쳐다보기가 불편하다며 투덜거린다.

「로마가 구경거리로 꽉 찬 도시에 높은 신발을 신고 나오셨읍니까? 자동차보다 걷는데가 더 많을 터인데.」

정말 미스터 정의 짜증은 곧 실증되었다.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로는 결코 돌아다닐수 없는 광대한 폐허에의 고적, 궁터, 박물관등이 꽉꽉 찬 곳이 로마市였다.

로마는 市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박물관이다.

이끼낀 건물 하나 하나에는 모두 역사적인 드라마가 있고 그 스케일 또한 장엄하다.

우선 가장 큰 로마의 남광장(南廣場)은 콜로세움과 카피돌리에 구릉 동쪽에 있고 구릉 밑에는 거대한 반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현대에 지은 경기장의 원형(原型)같이 과학적이다.

◇로마의 競技場。옛날 로마人들은 이 곳에서 투기를 즐기며 환락을 누렸다.

다만 현대에 지은 그라운드는 인구 증가에 따라 더 크고 넓을 뿐 그 모습은 현대의 축소판이면서 더 견고한 대리석과 벽돌로 되어 있다.

티베르강 오른쪽에는 세계최대의 성 베드로 사원이 있고 옆 언덕에는 바티칸 궁전이 자리잡고 있다.

유명 박물관만도 이탈리아 박물관, 미켈란젤로박물관, 바티칸박물관등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박물관이 세계 석학들의 혀를 차게 한다.

티베르강 동안에는 왕궁과 국회의사당, 대학등이 있고 판테온(Panteon)투기장, 카라칼라(Caracalla)욕장등 세계적 명승지가 있다.

로마가 관광객의 발을 묶는 것은 그 유명한 로마시대의 건축, 미술조각이 잘 보존되어있고 역사적인 해설을 들으면서 잔인하고 용감하고 뜨거운 무궁무진의 희비극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로마의 사극에서 많이 보는 영화속의 배경들을 실제로 구경하면서 그 속에서 꽃피고 졌던 많은 美女와 재왕의 러브스토리와 무서운 칼싸움, 죽음을 건 사랑의 역사와 죽음의 현장을 상상한다.

초원위에 흩어져 있는 한개의 하잘것 없는 대리석 토막에도 그것이 1천년전 무엇에, 어디에서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로마의 유적들…。

◇라토像。살아움직이는듯한 아름다움은 예술의 극치를 보는듯 황홀하기까지했다.

미켈란젤로의 彫刻 피에타像 정말 훌륭해

原型競技場, 이끼낀 建物마다 歷史가 담겨

한국의 소나무를 많이 닮은 노송들이 드문드문 서있는 곳에 어우러진 벽, 몇개 안 서 있는 대리석의 높은 기둥들, 트라잔황제의 저 유명한 병사의 조각은 그속에 조각된 수만명의 로마 병사들의 살아 있는 모습 때문에 더욱 관광객의 눈을 황홀하게 한다.

미켈란젤로 박물관에 들어서면 예수님을 안은 피에타상이 우리의 발을 그곳에 못박아놓는데 이 피에타상은 대리석의 섬세한 조각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싶도록 실크같은 감촉을 보인다.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위대한 조각가였는가. 그것은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벽화, 천장화, 대리석 조각을 보지 않고는 짐작도 할수 없는 天才性이다.

피에타의 인테리어가 얼마나 품위있고 고색이 창연한 색채미를 가지고있는지. 수도사들이 많을 타고 달리는 회색의 벽화, 그 율동적인 선의 매혹은 지금이 현대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정신을 혼미시킨다.

티볼리 빌라의 연못을 둘러싼 건축물및 대리석 조각들은 머리가 없고 코가 뭉그러져 나갔지만 그 손이나 팔의 근육미 같은 것이 남성미·여성미의 完成을 느끼게 한다.

「저 대리석 조각 같은 남자였음 한번 프러포즈하겠읍니까?」

「아이구, 황송해라. 보기만 해도 자못 터질것 같군요.」

로마의 조각은 그처럼 위대하고 매혹적이다.

국어와 영어

千字春秋

金烈圭 <西江大 교수>

느닷없이 영어 회화교육을 두고 천하의 공론이 분분하다. 신문기사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루아침에 문득 일어난 문제가 도깨비 대동강 건너뛰듯 야단스러워지고 있는것 같다.

교육계의 무슨 사회운동이나 강조기간처럼 불시에 들떠도 좋은것일까. 당장 명년 대학입시에 회화능력을 반영시키겠다고 한때 보도되었을 때는 정말 아찔했다. 조급하다기보다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마터면 수많은 고교 3년생들이 영어벼락을 맞을뻔했던게, 지금은 태풍일과라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영어회화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는것은 인정한다. 문제는 왜 그당면한 과제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불쑥 튀어 나왔느냐하는데있다. 여태껏 당국자들이 알고도 모른체한 것일까. 아니면 영 몰랐던 것일까. 해방후 영어교육 30년동안 그만한 문제점하나 대처하지 못하였다면, 영어회화교육을 강화하기에 앞서 그 방면 문교행정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하는것은 아닐까. 그나마 일단 문제가 부각된 이상, 행정이나 정책당국은 겸허한 자기반성과 더불어 충분히 뜸을들여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바라고싶다. 읽기, 쓰기, 말하기가 3위1체로 제대로만 교육된다면 더 바랄데가 없을것이다.

일부에서 <하우스·보이>를 기를 생각이냐고 빈정대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교육이나 대증요법처럼 일시변통으로 다루어져도 안될 것이다.

여기서 더불어 생각할 게 있다. 국어교육에 따른 <말하기와 쓰기>부문도 영어회화 부문 못지않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어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석한 우리말이 되어 있질 않아서 점수를 못 준다는 영어과 선생의 얘기를 자주 듣는다. 다른 과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어교육은 대계 중의 대계다. <쓰기·말하기 교육>이 거의 없다시피하는 이 한심한 현실은 이제 만성질환처럼 굳어져 교육계는 그것에 아예 무감각해져 버린 것일까. 제나라말의 취약점은 버려 두고 남의 나라 말에만 기를 쓰는 것부터가 매우 비교육적이다. 이 기회에 모든 교과의 취약점을 살펴 그것을 보완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밝은웃음 넓은마음, 희망솟는 우리가정

MUTUAL LIFE

금번 Mutual Life에서 일하게 된 박시조입니다
Mutual Life보험회사는 카나다에서 individual life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보험가입자를 흡수한 상호보험회사로서 11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진 카나다자본의 굴지의 대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Mutual Life는 바로 보험가입자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보험가입자 모두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으며 상호보험만이 갖는 특수한 장점들은 교민여러분의 미래의 설계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박 시 조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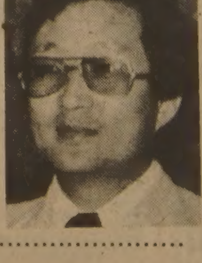
취급보험: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은퇴보험
- 구룹보험
- BUSINESS LIFE보험
- R. R. S. P. (세금공제 은퇴저축)
- INCOME EVERAGING ANNUITY

주 소: 251 CONSMER RD. (세퍼드×빅토리아 픽)
전 화: 494-3800(B). 481-8835(R)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TD)

1011 DUNCAN MILL RD., SUITE 404
DON MILLS, M3B 1Z3

전화: (B)449-8644, 8645(H)286-1548



부동산 BROKER
모게지 BROKER

금주의 새 리스팅

드라이크리닝사업
주매상 $3000 맥도날드 햄버거 옆,
$100,000다운, 가격 $150,000

건물달린가게
1) 주매상, $6,500 3베드룸, 코너, 외국인 경영 50,000만 다운, 잔액 모게지 잡아줌. 가격 $220,000
2) 주매상 $4,000 3베드룸 코너 가격 $129,000

바라어티
1) 몬트리얼에 있는 주매상 $13,000 시간짧고 이윤좋은가게. $100,000다운 가격 $155,000
2) 주매상 $3,700 일요일 닫고 주중 시간도 짧음. 그로서리 없으며 NET월수입 $3,000 가격 $35,000
3) 바라어티와 픽업 드라이크리닝겸한 가게 월 순수익 $4,000 리스 월 $400 4년 + 5년 + 5년옵션.

꽃 과일가게
1) 주매상 $3,500~$4,000 월 $550 담배와 티켓 포함되지 않음. 일요일 닫고, 주중시간 짧음. 현 외국인 경영 가격. $22,000

샵핑몰안에 있는 기프트 가게
년매상 약 170,000 가격 $80,000

이외 투자용 건물, 프라자및 GAS STATION 자리도 있읍니다.

태권도 跆拳道

ONTARIO OPEN TAE KWON-DO ! TOURNAMENT

때: 1981년9월26일
장 소: UNIVERSITY OF TORONTO (Sports Gymnasium) 55 Harbord St. Toronto
가 격: Ring Side : $10.00
Adult : $5.00
Children : $3.00 (Under 12yes.)
시 간: Eliminations 12:00 Noon
Finals : 7:00P.M.

PRESENTED BY SON BROS. TAE KWON-DO CENTRE

(2190D BLOOR ST. W. TOR.)
☎ 763-1155-6

우리는 흔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일하지 않으면 마땅히 먹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다. 어디까지나 진리겠지만 어렸을 때 나에게는 무자비하게 들렸다. 그리고 뜻을 잘 새길 수 없었으나 무서운 말이었다.

金永鎭씨
<聖書敎材刊行會회장>

일은 곧 삶이다
여자의 사랑은 남자고 남자의 사랑은 일이다

나는 가난한 집안의 7남매 사이에서 자라났다. 어린 나에게 이 말은 더더욱 무서운 말이었다. 한창 클 나이로 금방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 먹는다는 것은 어른 세계의 「먹고 산다」는 고통만큼이나 큰 일이었다.

한 마을에서 몇 집을 빼고는 거의가 빈농이었던 30여년 전의 우리 나라 농촌 중의 하나였던 내 고향 마을 가난에 대해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아프다. 빈농 중의 하나였던 우리 집의 어려웠던 생활은 이제 지나간 옛추억이 되어 현실에서 그리 실감은 없지만, 기억에서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과 더불어 가끔 내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하지 않으면 너나 없이 굶을 수밖에 없다. 6·25사변을 전후한 우리 나라 농촌 경제는 비단 내 개인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그 참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가난과 빈곤이라는 단어의 추상성은 실제 그런 일을 겪은 인간의 고통이나 상황에 비하면 실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일은 직접 겪는 일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그런 가난과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상상하거나 간접 체험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일의 의미는 곧 생존이었다. 따라서 먹고 산다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므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면 그 말이 각박하다고 느꼈던 어린 시절은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삶의 의미를 [illegible] 말이었으며 거룩하기까지 한 말이었다.

일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의미는 생존에 있다. 왜 일을 하는가. 먹을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도 먹을 음식과 잠자리와 입을 옷을 주지 않는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처자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 주지 않는다.

◇吳承潤씨의 油彩「베틀」

生活속의 작은 知慧

그래서 일의 출발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있다.

그러나 인간은 욕망과 앞을 내다보는 눈과, 남과 비교할줄 아는 머리가 있기때문에 단순한 의식주의 해결로 그치지는 않는다.

먹더라도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하려고 한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므로 그 욕망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덜 부지런한 사람보다 많이 벌게 되고 쓰고 남은 것은 저축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일하기 어려운 시절과 앞으로 닥칠 불행에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열심히 많이 거둬들이고 적게 거둬들이는 정도에 따라 빈부의 차이가 생겨나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지배하게 된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상하부 구조의 기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 위에서 군림할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하부 구조가 생겨나는 원인이 반드시 이 경제 원리에 있는것만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안하면 가난한 삶못면해

힘센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부를 이룩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상부에 군림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미미한 일부의 예외이므로 경제원리에 의해 상하부구조가 생겨났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로 접어들면 표면에 나타난것보다 훨씬 복합되고 다면적인 원리들이 상호 작용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생겨나기도 했고 세계 여러곳에서 전쟁이 터지기도 했다. 무슨 이즘이니 무슨 주의니 하는것의 대결도 따지고 보면 바로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에 대립해서 생겨난것이 공산주의고, 양자는 서로 불합리성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모두 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일은 개인의 생존문제에서부터 확산되어 사회의 정치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 그 틀을 이루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앞서 가면 더 많은것을 누려 남이 먹이를 구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일의 또 하나의 의미이다. 남이 의식주에 매달릴 시간에 보다 창조적이고 차원높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위대한 예술가, 문학가, 학자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들은 물질적인 부를 외면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남들이 잘 살기 위해 바쁜 시간에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공부해서 온 인류에게 창조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

이런 일들은 언뜻 생각하기엔 소비적인 일로 보이나 그것 자체가 부를 누릴수 있는 보상이 되기도 한다.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치고 못사는 사람은 없다. 노력한 댓가는 정직하게 노력한만큼 돌아가는 게 또한 진리이기도 하다.

다시 내 개인의 일을 돌이켜 보면 가난한 성장기를 보낸 나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명제가 골수에 사무쳤다. 20대의 청년기에 나는 살기 위해서 24시간을 일했다.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먹지 못하고 남의 발길에 채여도 말 한마디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나는 굿굿이 살아 남으려고 발버둥쳤다. 그러나 살아 남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金基赫씨의「목단」

人間엔 앞을 내다보는 눈이

생존만이 아니라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생활이 절실하기만 했다. 이것이 나의 젊음이었고 나의 인생이었다.

누구나 일단 일에 몰두하면 여러가지 잇점을 얻게 된다. 잡념도 없어지고 양심의 의무감은 것도 해결되고 (인간은 누구나 일해야 한다는 관념)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일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 일에 대한 즐거움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일하는 것은 단지 고통일 뿐이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무슨 일을 하든 고되고 피로하고 짜증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일은 더욱 못할 일이다. 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실컷 놀아보라. 건강이 정상상태가 아닌 사람 외에는 보름도 못가서 온 몸이 쑤시고 지겹고 싫증날 것이다. 무슨 소일거리가 없을까 찾게 되고 하다못해 장작이라도 패고 싶어질 것이다.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생기는 힘은 무슨 일이든 해서 소모시키게 되어 있는것이 우리 인간의 신체구조다.

일하는 보람을 찾게 되면 일은 즐겁고 기쁘다. 이것을 깨닫는 것처럼 유익한 일은 또 없을 것이다. 일하는 즐거움, 노동의 환희, 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을 하면 우선 돈이 생기고, 또 친구를 사귀며 사회의 필요한 구성원이 되어 만족해지고 일 자체에 대한 애정이 싹트게 마련이다.

일이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개인적인 필요를 벗어나 사회적인 성취욕 및 즐거움에서 나아가 일의 가장 마지막 의미인 사랑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일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다. 일에 흠뻑 빠져 [illegible] 고통스럽게 아는 것을 사랑하는 단계가 일을 하는 마지막 이유인 것같다.

일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는 일을 즐기고 일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서 시대라는 말은 역사적인 시대관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와 시대를 의미한다. 개인의 역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즐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다.

나는 지금 내 일을 아끼고, 무척 사랑한다. 아침에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여 회사 안팎을 둘러보고 그날의 일을 구상하고 계획한다. 내가 일찍 출근하는 것은 직원들의 출근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직원들은 출근 시간에 늦지 않게 출근하면 되고 그 이상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 개인의 입장은 다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서 나의 일터로 나아가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어쩌랴. 이것을 나는 일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람을 사랑할 때 매일 그 사람이 보고 싶고 항상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사랑하면 그 일을 손에서 떼어놓고 싶지 않고 안보면 불안해진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랴.

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고용된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모두 일은 고통 속의 즐거움이며 사랑이라고 나는 강조하고 싶다. 어쩌면 사람의 감정 그대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일이다.

여자의 사랑은 남자이고 남자의 사랑은 일이라고 누군가 단적으로 표현한 것을 읽은 기억이 있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일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남자들의 영역이므로 남자들의 사랑의 대상은 어느 경우에는 여자보다도 일이 앞서는 것같다.

어쨌든 일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은 삶의 고통, 즐거움, 괴로움, 사랑, 인생의 원리를 고루 갖춘 값진 보석이다. 일 자체가 삶이 아니었던가.

사람의 목숨은 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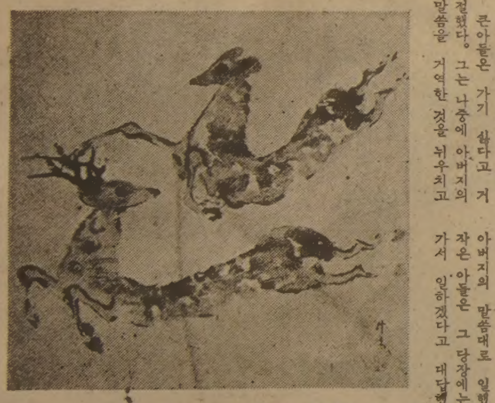
인간은 한정된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일로써 충만되어 만족한 생활을 하고 성공하여 길이 이름을 남기기도 한다.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다고 본다.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날 기회를 부여 받았는데 남이 하는 일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단지 주어진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문제가 있으나 그것은 극복하고 해결할 일이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고생없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일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참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유태인 농부 한 사람이 아들 형제에게 말했다.

「아들아, 오늘 포도밭에 나가서 일하라.」

일은 삶의 고통과 즐거움주는 값진 寶石
怠慢하거나, 배반하면 하늘나라에 못가



◇宋榮邦씨「作品」

큰아들은 가기 싫다고 거절했다. 그는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했다. 작은 아들은 그 당장에는 나가서 일하겠다고 대답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장남은 세리와 범죄인, 창녀(나중에 회개하는)이며 차남은 유태인 지도계층인 제사장, 장로, 서기관(이들은 하나님이 보시는데서는 제사 지내고 충성하는듯 했으나 뒤로 죄지은 자들이다)들이다.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세리와 창녀와 범죄자 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아 죄악에 빠졌으나 곧 회개했다. 그러나 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운동에 합세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말았다.

이들에게 일이란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따르고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었다. 그 일을 충실히 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태만하거나 배반한 자는 미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기회를 잃었던 것이다.

첫 인간인 아담은 죄짓고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났으나, 그 후예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입어 다시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자기에게 맞게 활용하여 진실한 삶을 누려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보람있고 알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알맞는 일을 찾아내어 해 보라.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소질이 발견되면 그 일에 매달려 미치도록 파고들어 보라.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꼭 있을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은 성공이니 출세니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아실현이니 자기성취니 하고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빌어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일이란 선악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인 국가사회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일은 곧 삶이다.

原稿모집

마음을 툭 터놓고 對話를 해 봅시다. 내가 겪은 소중한 體驗의 敎訓을 이웃에 전합시다. 서로의 生活을 윤택케 해주기 위한 廣場이 여기에 있읍니다. 이웃과 친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으십시오. 對話의 廣場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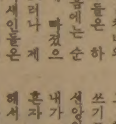
■素材=제한없음
■張數=20장內外·筆者略歷
■보내실곳=서울鍾路區中學洞14 한국일보社 週刊한국部 部長席
■揭載分에 대해 所定 原稿料. 原稿返納 해 [illegible]지 않음

現代人의 健康百科

急性腸炎

食中毒이主因…날것·不潔한것피해

복통이 상복부, 즉 명치끝부분을 피해 배꼽주위나 하복부에 있게되면 흔히 장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 구체적으로 장에 어떤 병이 생겼다기보다 막연히 장에 염증이 일어났다고 보는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자들을 자세히 진찰해보면 이들의 대다수가 장에 염증이나 어떤특기할만한 병변을 갖고 있는것이 아니고 이보다는 복부 근육에 생긴 이상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것을 알수있다.



실제로 소장에 급성염증이 생기는것은 상한 음식이나 지나치게 찬 음식을 섭취했을때가 많다. 즉 복통은 식중독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다. 식중독으로 急性腸炎으로 나타나는 주증상은 배꼽주위가 아파오면서 설사가 있고 구역과 구토가 일어나며 심하면 열이 나는것이다. 어떤때는 복통과 열없이 설사를 하루에 여러번 보면서 배변때마다 [illegible] 일으킨다. 설사 기간은 대개 몇시간에서 하루나 이틀정도 지속하지만 구토와 설사가 심해 이로해서 탈수상태에 빠져 응급처치가 필요할때도 있다.

급성장염은 세균에의한 식중독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들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및 비브리오균등이 대표적인 원인균으로 꼽힌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균이 들어갔거나 먹다남은 음식을 보관이 잘되지 않았을때, 혹은 처음부터 세균으로 오염된 음식을 날것으로 먹었을때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해산물을 회로해서 먹었다든가 불결한 음식점에서 [illegible] 음식을 사먹었을때, 먹다남은 음식을 냉장고속에 오랫동안보관하였다가 먹었을때, 이들음식속에 세균이 크게번식, 급성위장염을 일으킨다.

위생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공업선진국에서는 세균에 의한 급성위장염이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illegible]을 위시한 여러가지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으로인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예가 많지는 않지만 자극성이 강한 조미료를 너무많이 사용하거나, 설탕과 호르몬 제재로 알지못하는 사이에 남용하여서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예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崔圭完([illegible]·서울大 [illegible]교수)

韓國戰참전 加용사 당시 박영이군찾아

한국전에 참전했던 캐나다인이 전선에서 사귄 한국인을 찾고있다. 51~52년에 임진강북쪽에서 영국연방1사단 캐나다 25연대 패트리시아대대소속 보병소대장으로 근무했던 로버트슨씨는 전선에서 마스코트로 데리고있던 한국소년 (당시12~14세)을 찾고있다. 한국소년의 애칭은 「지미」. 로버트슨씨 기억으론 한국이름이 「박영이」고 고향은 동두천 이었다. 지금 나이는 42~43세 되었을 것이라는추측이다. 오는 10월에 한국에 올 예정인 로버트슨씨는 빨리 박씨의 소재를 찾아 한국에서재회하기를 바라고있다. 주소=Box 904 Victoria, B.C. V8W 2R9 Canada

노르웨이 두女敎師 民泊한국가정 願해

10월 한국을 방문하는 2명의 노르웨이 기혼여교사가 한국의 가정을찾고 있다. 전에도 한국에 와본적이 있다는 라근힐드·스카르여사등 두여교사는 『한국생활과 한국인을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루나 이틀쯤 민박할 진실한 가정을 소개받고싶다』고 한국일보에 편지를 부쳐왔다. 뜻있는분은 722-8937에 문의바람.

한국일보 詩壇

지난 여름은

朴容秀

지난 여름은
이 가을을 얻기 위해 있었다.
불볕 속을 헤집고 다니며 흘린
비지땀도
가을에 와서 영그는 씨앗이었다면
우리들이 實行하기 위해 외쳤던
당신의 말씀들
이 季節의 史家는 무엇으로 써 남길
것인가.
지난 여름 우리들이 뿜어낸
왕성한 분노 만으로도
땅 끝까지 무섭히 일구어 놓은
이삭을 보아라.
이제
참새 떼지어 어지러이 날으는
이 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때묻은 옷차림인 채 우리들
허수아비 춤사위라도 보여야 겠다.

今週의 에세이

가을의 문턱에서……

"나뭇잎 떨어지면 天下의가을 알게된다"

가을은 모든일에 준비를 서둘러야할 중요한 계절

自然의 四時節통해 人生의 起伏가르쳐
가을은 뭣보다 人間 일상의 手善결과가 열매맺게되는때…

孫澤九목사 〈[illegible]校교장〉

그렇게도 지리했던 찌는 더위도 지나가고, 상쾌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철의 문턱에 들어섰다. 햅쌀로 송편을 빚어 차례(茶禮)를 지내고, 벌초와 성묘를 하는 가을의 명절이 왔다. 더위에 시달리는 속에 우리는 어느덧「아, 가을이 왔구나」하고 느끼게된다.

가을은 燈火可親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깊은 默想의 계절이기도 하다. 나는 종종 인간의 일생을 사지절에 비교하곤한다. 청춘의 꿈을 품고 꽃향기에 취해 안개속을 걸어가는거와 같은 청소년 시절을 인생의 봄철에 비교한다면, 이마에땀 흘리고 艱難辛苦와 싸워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가는 장년시대는 여름철과 같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황금물결이 굽이치는 가을의 산과 들은 정직과 근면으로 좋은 씨를 뿌려 일생동안 가꾼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인생의 노년기에 비유할수 있을것이다.

겨울철은 또한 일생의 수고를 마치고 땅 속에 묻혀 편히 쉬면서, 새로운 부활의 봄철을 기다리는 때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사시절을 통해서도 人生의 서작과 마지막을 가르쳐주시고 있다.

이처럼 가을은 무엇보다도 추수의 계절이고 인간 일상의 수고한 결과가 열매 맺게 되는 때다.

예수께서는 추수의 계절이 가까왔을때 곡식들이 무성한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있는데, 그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되니, 추수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추수때에 가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게 하라고 일렀다.

이와같이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려 천국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자는 나쁜 씨를 뿌려 악한 자들을 산출시켰던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고 善惡간에 다같이 자라게 하시지만, 그러나 선악간에 그 결과를 심판하실 날은 반드시 온다고 했다.

그것이 우주와 자연계의 법칙이요, 倫理와 道德의 법칙이다.

가을은 落葉의 계절이다. 곡식을 걷어들이는 때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쌀쌀한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뭇잎도 떨어지고 푸르렀던 초목들이 쓸쓸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人生의 많은 수고의 열매를 얻어 성공한 열매를 즐기는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것이다. 모든 王侯將相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도 한 개의 비석을 남기고 가을 나뭇잎처럼 떨어져버리고 만다.

그 누구에게도 인생의 가을철은 꼭 닥쳐온다. 무덤 저 건너편의 쓸쓸한 겨울철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때가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거기 대한 준비 있는 생애를 맞아야하는것이다.

가을은 개인의 생애에서 만이 아니라, 온세계에 다 찾아온다. 「나뭇잎이 떨어지면 천하의 가을을 알게 된다」고 했듯이 이 말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來世라는 뜻으로도 비유할 수 있다.

[illegible]박한 이 시대상을 깨닫고 모든 일에 각성해야만 할 때다.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다는 잠꼬대 같은 생각에서 깨어나야한다.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고, 나뭇잎은 떨어져 겨울철의 寂寞은 찾아오겠지만, 만사가 다 끝나버린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새, 봄을 기다리는 生命이 잠재해 있어서, 긴 겨울철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올 때, 이 부활의 생명은 힘차게 솟구쳐나와 산과 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모든 것이 꿈과 같이 지나가고, 그림자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인간 일상에 있어서도 영원무궁한 생명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이 생명력으로써 죄악과 환난의 파도를 헤치고 승리의 생애를 보낼 수 있을뿐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가을은 이 모든 일에 준비를 서둘러야 할 중요한 계절임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流星의 賦 <179>

李炳注作 李友範畵

山空花自紅 ㉓

회현동 하석의 집에 모여있던 팔협(八俠) 들은 계남의 행방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던 차, 뜻면 귀공자로 둔갑한 그를 맞아 어리둥절 했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서두하고 계남은 어젯밤 군치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하여 아침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대략 설명을 하는데 숙란과의 일은 빼놓고 말하지 않았다.

계남은 이염(李炎)의 집에서 잔결로 하고 이염의 의사를 상세하게 전했다. 적여림이 역적(逆賊)이 될때까지 방치해 두라는 말엔 모두들 적지않게 놀란것 같았으나 전후사를 견주어 본 결과 그 이로(理路)가 뚜렷하다고 인정하고 하루 빨리 이염의 충고에 따라 팔협을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합쳤다.

그리고 나서도

『과연 이염이 어떤 자인가』

하는데 대한 호기심은 남아 갖가지얘기들이 나왔다.

『안양군(安陽君)의 후예가 아닐까?』

『봉안군(鳳安君)의 후예가 아닐까?』

하는 얘기조차 튀어 나왔다.

안양군, 봉안군은 둘다 성종(成宗)이 후궁의 몸에서 낳은 아들들인데 연산군에 의해 살해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이염을 그들의 후예라고 하는 추측은 엄토 당토 않았다.

『아뭏든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보기엔 금왕(今王)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어디 무관(無官)의 몸으로…』

계남이 이염의 몸가짐과 그 견식의 탁월함을 설명하자, 그 가까이에 있던 하석의 천지기 노인이 다음과같은 얘기를 꺼냈다.

『성종에겐 여섯 아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 가운데의 하나가 연산(燕山)이고, 다음이 중종(中宗), 그 다음이 계성군(桂城君), 안양군, 봉안군, 이성군(利城君)인데 안양군과 봉안군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연산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성종에게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어. 후궁 박씨소생인데 퍽 영특했다는 소문이 있지. 한데 연산이 즉위하자 후궁 박씨는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딘론가 도망쳐버렸다는 거야. 아들의 생명을 위한거지. 물론 군호(君號)가 있었지만 대내의 법도를 어기고 도망친 후궁의 소생이라 삭호 삭적(削號削籍) 처분을 받았다. 연산은 그들 모자(母子)의 행방을 맹렬하게 수궁한 모양이지만 찾아내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죽은 셈이지. 듣자니 이영이란 사람은 그때 도망친 왕자의 후예 같군. 만일 그렇다면 금왕(今王)과 팔촌간(八寸間)이 되는 셈이다』

모두들 그럴듯 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확인해야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다만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그들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막상 그들에게 호의가 없는바 아니란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될 일인 것이다.

그들은 그 이튿날 세검정에서 큰 잔치를 열어 송별연(送別宴)으로 하고 삼년 후 다시 모일 것을 갖자는 약속을 나눈뒤 헤어졌다. 그길로 홍계남과 이덕남은 안성을 향했다. 홍계남의 인생에 봄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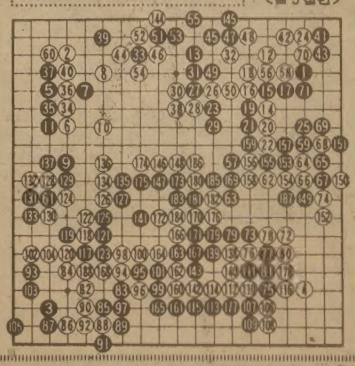
해외걸작만화

"If it rains to help the farmer, how come it rains in the city?"

「비가 농민에게 좋다면 도시에는 왜와요?」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局 總譜 188手完 白不計勝 (덤5집반)



白(5段) 張 秀 英

黑(4段) 鄭 [illegible] 鉉

張5段, 緖戰을 장식

張5단은 작년도 12期에 처음으로 名人戰본선에 진출하더니 예상을 뒤엎고 5승1패의 뛰어난 전적으로 시드組에 優先確留, 차츰 원숙해가는 실력을 과시했다.

특히 徐奉洙7단과의 한판은 종반전에서 절대우세, 승리는 따놓은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단한수의 완화으로 역전분패했다. 만약 그바둑만 이겼더라면 6전전승으로 曺薰鉉名人에 도전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고 好事家들의 아쉬움을 샀지만 본인은 물론 지극히 겸손하여 『옷선배들중에서 시드組에 남은 일만이 다행이다』고 말한다.

어쨌거나 올해도 서전을 장식하여 앞으로의 활약이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한편 鄭4단은 아깝게도 첫판을 잃었으나 다른 棋戰에서의 성적으로 미루어 앞으로는 좋은내용의 바둑을 보여줄것이라 믿어진다.

예에따라 이바둑을 대충 훑어본다.

초반에 때이르게 일어난 삼변의 전투에서 黑은 흑이길수없는 착각을 범했다. 白44때 黑45이하로 우상흑白을 포위공격한것은 白이56으로 사는수를 마련하고 있었는데도 鄭4단은 그白56을 맹점에 두고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黑33·39를 거저족이고서 일거에 대세를 그르쳤다. 이뒤 白의보수적수법에 대하여 黑은 강경일변도로 버린것이 주효하여 黑81로써 대세를 만회했다. 그러나 黑85이하의 공격을 실패하더니 黑117의 조급한 작전으로 白에138을 당한데서 재역전. 급기야 옥쇄수단을 취하고 말았다. 소비시간 白=3시간15분, 黑=2시간45분. 【一凡】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제1회 카나다 한국인청소년 우리말 잘하기및 웅변대회

10월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카나다 교포청소년들이 모국어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말 잘하기및 웅변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교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1년10월10일(토) 오후6시30분
장 소 : 한 인 회 관
신청마감 : 10월5일

〈우리말 잘하기대회〉
자 격 : 만12세 미만
제 목 : 어머니, 한국말, 우리집, 한국
제한시간 : 3분~5분까지

〈웅변대회〉
자 격 : 12세이상 중, 고교생
내 용 : 2세교포들의 모국어교육의 중요성
제한시간 : 7분
시 상 : 상장및 부상
각 최우수상, 1, 2, 3등, 장려상, 참가상
연 락 처 : 이인용(789—7352, 222—3076)

공동주최 : 한·카 청소년문화협회, 라이온즈클럽
후 원 : 한인회, 토론토한국교육원, 노스·욕한글학교, 씨알학교

KOREAN MOON FESTIVAL

Saturday, Sept. 19 1981

CEDARBRAE DISTRICT LIBRARY
545 MARKHAM ROAD
(south of Lawrence Ave. East)

PROGRAM STARTS
1:3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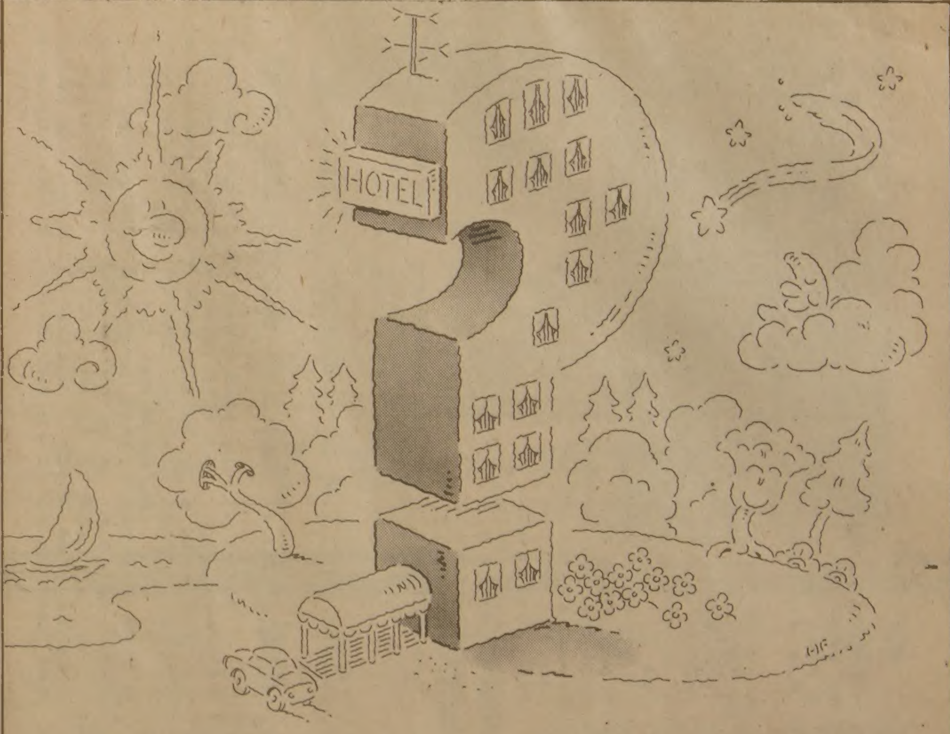
• A Korean Film
Performance by Korean YMCA Young Dancers

Games of Yut, with Prizes

Free Refreshments

ALL AGES WELCOME

FREE ADMISSION



"불구자들을 위한 여행안내" 책은 여러분의 온갖의문을 풀어줍니다.

주차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입니까. 당신은 입구를 통해 제대로 조정이 가능하게 보입니까. 변소시설은 편리합니까.
이런종류의 질문들은 "불구자를 위한 여행안내"라는 온타리오주 100 군데 이상의 주요 명승지소개에서 해답을 찾게됩니다.
또한 당신은 아래와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즉, 가까운 숙박설비, 카나다 청각협회사무실, 맹인을 위한 국내지역 사무실, 지체불구자들을 위한 편리한 장소를 갖춘 프로빈셜 공원, 교통문의및 하이웨이 400, 401의 써비스센터등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온타리오를 여행할때 그 안락함에 놀랐음 을 나타낼 것을 확신합니다.
아래 주소를 편지에 써서 "안내책자"를 얻을 수 있읍니다.
Ontario Travel, Queen's Park Toronto Ontario M7A 2E1
Tel : (416) 965—4008(Collect)

Ministry of Industry and Tourism
Ontario
Larry Grossman,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ONTARIO yours to discover!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㊵

金洪信 作
崔然石 畫

학생들이 올라가고 난 뒤에 우리는 다시 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안합니다. 저희는 수표를 취급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사람 좋게 생긴 주인은 내가 내민 수표를 난처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통용되는 화폐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선 서울 수표를 받아주지 않아요. 돈 찾으러 가면 십만원 짜리 수표를 4천8백원이나 떼는걸요. 그걸 손님에게 받을 수도 없고요.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을 안줘요.』

『속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우리도 답답해 죽겠어요. 서울서 온 분들이 간편하게 수표 갖고 오는 걸 여기 은행서 저렇게 취급 않고 또 터무니 없이 추심료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는 취급할 도리가 없읍니다.』

산장 주인은 얘기가 나온 김에 이곳의 물가가 보통 시중보다 3배나 비싼 것이며 여관값이 처음 지을 때보다 형편없이 싼 이유며 망해서 손든 사연을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지난줄거리

설악산에 도착한 송찬이와 명식이는 저녁밥을 먹고 텐트촌옆으로 구경나갔다가 뜻하지 않게 소년 소녀들의 음란한 놀이를 보게된다. 명식이가 말릴사이도 없이 소리쳐서 소년들이 도끼와 칼을 들고 덤비게된다. 송찬은 그들을 때려눕히고 파출소에 넘기는것대신 그들이 떠날때까지 동숙하여 보호할 것을 결심한다. 소년 소녀들은 금새 잘못을 뉘우치고 즐겁게 어울려 논다.

『여기 사람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세금은 비싸죠, 손님은 없죠, 이것저것 뜯기는것 많죠, 휘파리라고해서 여관 소개해 주고 뜯어먹는 패들 득시글거리죠, 단체손님 받아봤자 관광회사 운전사들에게 뜯기고 나면 40명짜리 단체손님 받아봐야 만원 한장밖에 안 남아요. 이거 거짓말같지만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해도 너무해요. 운전사들 쥐어주는 액수가 자그마치 5만원입니다. 먹여주고 술 사다 바치고 돈까지 쥐어줘야만 겨우 이것이라도 합니다.』

『운전사에 뭣하러 줘요. 그렇게 안 벌리는 장사하면서.』

내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다간 그나마도 손님 끊어져서 손가락 빨아야 돼요. 정말 관광회사의 담당자 횡포하고 운전사 횡포만 없어져도 살겠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돈 안주거나 대접 시원찮으면 설악산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다른 운전사들에게 어느 집엔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통하는게 있어요. 일제히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죠.』

주인 남자는 종이 위에 볼펜으로 끄적거려 가며 손님 머릿수와 들어오는 돈을 적고 그 아래에 운전사나 관광회사 담당자에게 뜯기는 액수를 적어 나갔다.

『보세요. 뭐가 남는가 보세요. 인건비도 안나오잖아요. 그러니 이놈의 여관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인의 계산하는 종이를 유심히 보다가 이익금의 거의 전액을 운전사와 관광회사 직원이 채간다는 걸 알았다.

『참 미련하네요. 업주들끼리 단합해서 물아내면 되잖아요.』

명식이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런 쉬운 상식문제를 가지고 걱정한다는 표정이었다. 물론 나도 동감이었다.

『우린들 왜 모르겠어요. 그게 안되니까 문제죠. 겉으론 그러자고 해놓고 몰래 자기 혼자 그런 짓들 하니까 안돼요. 결국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인 거죠.』

우리는 주인 말을 듣고 흥분을 했지만 우리 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모순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 수표는 휴지조각이란 말입니까?』

주인은 난처한 듯이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수표 때문에 창피당한 얘기를 또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어떻게 만들어서 나갈 때 주시죠.』

『그럼 그래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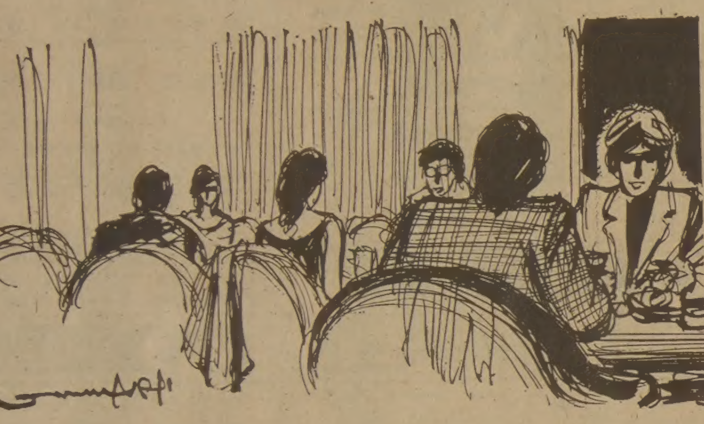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산장의 방 한칸을 빌었다.

『호텔에 가서 한잔 빨고 바꾸지머.』

내가 투덜거리며 이렇게 말하자 명식이는 속초에 가서 필수품을 사고 바꾸는 편이 좋겠다고 했다.

현금을 모두 차비 떨어진 학생들을 주어버린 뒤여서 우린 당장에 현금이 필요했다.

『까짓거, 한판 놀아보지 머. 원님 덕분에 나발 불어본다고 대한민국에서 수표가 통용되지 않는 땅에서 한번 재껴보지 머.』



수표도 바꿀겸 한판놀자, 멋진 애가 걸릴지 누가 알아
이젠 사랑이란 말이 3류들의 타락한 말처럼 들리고

호텔에 자지 않겠다고 우기는 명식을 나는 끌고 나섰다. 절룩거리는 다리 때문에 녀석은 사람 많은 곳에 되도록 가지 않으려고 했다.

『누가 알아? 쫄깃쫄깃한 계집애라두 하나 걸릴지.』

내가 이렇게 말했다. 녀석은 나를 올려다 보고 씨익 웃었다.

『임마, 나 아직도 동정이라구. 사나이 정조를 그렇게 깔보는게 아니라구.』

『여자는 배짱, 사내는 정조 그렇게 된거냐?』

『다혜씨 생각 좀 해라.』

『다혜.』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말문이 막혀 버렸다. 괜히 가슴 속이 찌르르 아파왔다. 어쩌면 영원히 다혜, 마음을 돌려 버릴수 없을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서는 아직도 다혜를 분실한게 아니었다. 다혜를 사랑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 한번도 다른 여자에게 몸을 내던져 보진않았었다. 그것이 내 사랑의 징표인지도 모른다. 다혜가 그런 내 마음을 알아줄리도 없겠지만 그런 말을 할수도 없었다.

다혜에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낱말을 지껄여본 적은 없었다. 사랑한다는 말이 왜 그런지 지독스럽게 천박해 보였다.

마치 3류 소설이나 시덥잖은 텔리비전 연속극 주인공, 형편없는 주간지속의 낯 간지러운 자태, 젊은 애들의 말장난, 더러는 반나의 유행가 가수가 몸 쓰며 떠벌리는 처량한 곡조, 그렇지 않으면 방석집의 색시가 치마를 반쯤 벗고 앉아 젓을 잘근잘근 씹으며 아무 남자한테나 지껄이는 소리같기만 했다.

사랑한다.

정말 그 좋은 낱말이 왜 그렇게 변질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사랑 뿐 아니었다. 첫사랑, 첫경험, 순정, 보고픔, 연애, 미소, 행복, 기다림, 사모 따위가 모두 3류 인생들에게나 타당한 낱말처럼 인식되어져 가는 것 같았다.

이제 그런 말을 쓰는 부류는 서커스단의 고전극이나 코미디 오락물 따위에나 써야 어울리는 낱말로 추락되었다.

넌 내꺼다. 난 네꺼고. 사그리 다 줘. 요즘의 점잖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만 같다.

어쨌든 그놈의 유행가 가사와 연속극 대사와 삼류잡지와 소설들 때문에 제 좋은 낱말들이 퇴색한 낱말로 둔갑된 건 부정할 수 없는것 같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세살만 넘으면 쓰지 않는 걸로 통용될 것같다. 어쩌면 나도 그런 부류가 될것인지도 모른다.

명식이에게도 사랑하는 여자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명식이가 소아마비라는 걸 알고 2년이 넘게 편지로만 사랑해온 것들을 아낌없이 한 술잔에 처리해 버렸다. 그는 그 이후로 다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지금도 그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도 한때는 이 더러운 놈의 돈을 술집 샥시한테 줘버리려고 했었지요. 귀찮드만요. 거추장스럽고… 그런데도 그 쌍년러 계집년이 병신이 꼴값 한다고 투덜거렸지요. 그래서…그래서 병신춤 한번췄지요. 쌍년러 가시내를 깔고 앉아 조겨줬지요. 그냥 잘근잘근 조진 거지요. 아따, 겁 나대요. 술집 샥시들이 특수훈련 받은 것처럼 나를 짓집디다. 머리털이 서너주먹은 빠졌지요. 기분이 짜릿합디다. 왠지 샥시들한테 맞으니까 온몸이 화악 풀립디다. 병원 가고 파출소 가고 그랬지요. 그런데 웬 일루다 그 년들이 밉지 않습디다. 병신보고 병신값 한다는게 그 년들 잘못만은 아니잖습니까. 내가 병신이면서 병신 아닌 척 한게 잘못이었지요. 당신들은 모를 겁니다. 알아봤자구요.』

어느 술자리에서 명식이는 이렇게 말했다. 좌석에 어울린 어떤 녀석이 명식이를 조금 깔보는 투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말인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녀석을 좋아하기로 결심을 굳혔던 것이다.

오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녀석의 동정을 없애 줘야지.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호텔 나이트 클럽은 설악산 구석에 박혀 있다고 깔볼 것이 아니었다. 규모도 그렇거니와 무대장치나 서울에서 초청해 온 가수나 그룹사운드들이 보통은 넘을 것 같았다.

육체의 불구가 몇천만배 낫다는걸 보여주려 결심하고
나무랄데 없는 미녀가 남자들의 노리개로 전락하다니

『이왕 술 사줄라면 맥주 말고 다른 걸로 사주라.』

『왜?』

내가 반문했다.

『맥주 그 놈의 걸 먹었다가 내가 뒤뚱거리며 화장실 다니게 된다. 그 꼬라지 안보려면 말이다.』

나는 가슴 끝이 저려오는 느낌이었다. 소아마비가 얼마나 처절하게 배어 있으면 저럴까. 그래 오늘 저녀석에게 소아마비는 별 게 아니라는걸 가르쳐 주자. 그래서 육체의 불구는 마음이 병든 친구들보다 천만배나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자.

컴컴한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나는 사냥감을 찾아 보았다. 내 이빨이 들어갈만한 계집애를 하나 찾아야만 했다. 무대를 중심으로 한 넓은 공간에는 음악이 바뀔 때마다 템포와 동작을 바꿔가며 춤추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내 계획에 협조하는 계집애만 있다면 10만원짜리 수표 한장은 아낌없이 줄 셈이었다. 이것은 무모한 짓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겐 그만큼을 써도 될만한 돈이 있었고 그만큼을 써도 좋을 친구가 있는 것이었다. 온주누나는 나를 그런면에서 행복하게 해주는 여자였다. 비록 다혜에게 오해를 받고 난처한 입장이었지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어 주는 여자였다.

춤을 추러 나가서 몇명의 여자들을 바꿔 잡아가며 그런 제안을 해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내 제안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여자는 돈을 더 주면 내 뜻대로 한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여자를 사지 않았다. 돈 때문에만 그런 일을 하겠다는 여자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그랬다가는 녀석의 비위를 더 건드리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나는 할 수 없이 비상책을 동원하기로 마음 먹었다.

『춘삼이 형 아슈?』

내가 지배인을 불러가지고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었다. 지배인은 내 아래 위를 쑥 훑어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술 공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뇨.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어디 해보슈.』

역시 지배인답게 나왔다. 춘삼이 형은 제 얼굴이 팔려있는 사내였고 나와는 한판 승부를 겨뤄봤던 사내였다. 이런 계통에선 춘삼이형이라면 족보가 높은 사람이었다.

나는 춘삼이 형과 내 관계를 소상히 털어놓고 내가 꾸미고 있는 일을 추려다 얘기했다.

『거, 기분 좋수다. 한번 해봅시다. 그럴만한 애가 있지요. 아주 적격인데요. 저 방에 가서 기다리슈. 내가 금방 데꾸 올테니까.』

지배인이 껄껄거리며 나가고 나는 호텔방으로 들어갔다. 한 5분쯤 되니까 노크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것은 지배인이 말한 여자가 아니라 힘께나 써보이는 사내 다섯명이었다.

『이거, 왜 이래. 나 가지고 진짜가 가짠가, 확인하려 들지마. 그러다가 오래 못살면 어쩌려고.』

나는 침대에 벌렁 누우며 말했다. 사내들이 나를 둘러싸고 일격을 보낼 동작을 취했다.

『지배인보구 그래. 그 정신은 좋은데 좀 섭섭하다구.』

그러나 사내들이 내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것 같았다. 다섯명이 동시에 돌진해 들어왔다.

『내 순정을 제 몰라주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벌떡 일어나 차례로 팔목을 쥐어 젖혀 던졌다. 다섯 사내가 재빨리 뒷걸음질을 쳤다.

지배인이 웃으며 들어왔다. 그 옆에는 지배인이 말한 것보다 훨씬 예쁜 여자가 방싯거리고 있었다.

『이해하슈. 하두 그러는 친구들이 많아서 말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좀 섭섭합니다. 표창장이라도 보여드려야 믿겠소?』

『관둡시다. 친하게 지내려면 그쯤은 봐둬야죠.』

『그럽시다.』

『이 친구가 얘기한 서유리입니다. 대충 얘기했으니 알아서 하슈.』

지배인과 다섯명의 사내가 자리를 떴다. 유리는 생글거리며 웃었다. 지배인한테 들은 얘기 때문인 것 같았다.

『손톱 깎고 메니큐어 지울 자신 있어요? 또 화장 지우고 수수하게 차릴 수 있겠어요?』

『자신있다면 안믿으시겠죠?』

『글쎄, 너무 시원시원해서 믿어지질 않아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어려운 부탁이라 그래요.』

주간女性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주간女性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아무리 이런 곳에서 굴러는 먹지만 말예요.』

『정말 고마와요. 대신 내가 한창 더 줄께요.』

나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처지배인에게 말한 10만원보다 곱으로 쳐서 주고 싶었다.

『그건 사절하겠어요. 대신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뭔데요.』

『이건 영원히 비밀을 지켜주실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맹세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부탁한 일인데요.』

『그리고 또 있어요. 시작이 늦으면 설악동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그러니 지배인님한테 부탁하든지 해서 금목걸이 하나 사다 주세요.』

『왜요?』

『저도 오늘을 기념하고 싶어요. 내가 태어나서 착한 일을 처음 해본다는 기념말예요. 두 눈[illegible] 나가는 거면 돼요.』

유리는 내게서 받은 10만원 짜리 수표를 도로 내게 내밀었다.

『그건 내가 해주고 싶어요.』

『억만금을 줘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이면 안해요. 이건 내가 하고싶은일예요. 그러니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완강한 의사에 더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유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손톱을 다듬고 메니큐어를 지웠다. 나는 그녀의 그런 자세를 쳐다 보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내 계획을 털어놓았다. 유리는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유리는 서울의 D여대 3학년을 중퇴한 여자였다. 이런 곳에 나오게된 것은 빈한한 가정 탓이었지만 잘생긴 용모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와 적잖은 살림을 돕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발한발 빠져들어 이제는 헤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양쪽 발을 들여놓은 여자였다.

『저도 한달에 한 이백만원쯤은 버는 여자예요. 저를 하루 저녁이라도 사려는 사람이 지배인에게 예약까지 하니까요. 그러나 아까처럼 깔보면 정말 그만둘거예요.』

나는 유리의 말에 고개를 숙정없이 끄덕거렸다. 정말 화류계에 이런 여자가 있다는 게 기분 좋았다. 내가 그동안 품고 있던 그들에 대한 경멸감이 그녀의 자세 때문에 마구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왕 저는 버린 몸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예요. 해보고 싶어요. 제 말 이해할 수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말이죠?』

『정말예요.』

『준비하고 갈께요.』

나는 유리를 남겨두고 방문을 나섰다. 유리가 뒤에서 불렀다.

『이만하면 되지요?』

『좋아요.』

그녀는 짧은 손톱과 메니큐어 지운 손톱을 내게 보여 주었다. 어디 한점 나무랄 데 없는 미녀였다. 생김새나 표정도 종처럼 천박해 보이지 않았다. 저런, 미녀가 어째서 숱한 남자들의 노리개로 전락했을까?

하나님. 기도하겠읍니다. 내가 좀 엉뚱하지요. 기도까지 다하고 말입니다. 저 서유리라는 여자를 보살펴, 주세요. 꼭 보살펴 주세요.

나는 다시 나이트 클럽으로 돌아갔다. 명식이가 두리번거리며 나를 찾는 눈치였다.

『어딜 갔었어? 나는 술값 뒤집어 쓰나부다 했지.』

초조해서 그랬는지 양주를 꽤 마신 것 같았다.

『니기미, 수표좀 바꾸노라고 그랬어. 겨우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바꿨다니까. 더러워서.』

『자, 이 수표도 통하지 않는 땅에게 축배를 보내자.』

녀석은 술잔을 높이 들었다. 나도 따라서 술잔을 들었다.

나는 녀석이 더 취하지 않도록 일찌감치 녀석을 데리고 산장으로 돌아왔다.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빌면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 다운타운 밀크스토어
워싱톤과 새인크레어
☎ 656-3020, 960-0761

주중이나 주말에 스토아에서 파타임으로 일할 헬퍼구함(여학생). 주말에는 풀타임 가능함
☎ 463-6334 QUEEN E. 지역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자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주말스토아 헬퍼구함
ALBION RD.
☎ : 745-6330

가게 헬퍼구함 : 풀타임(유경험자)및 주말에 일할분
돈밀 로드와 쉐퍼드지역(오후6시 이전 연락바람)
☎ : 491-9701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함.
☎ 535 2798 233 9454
781-9591(저녁)

도나스가게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헬퍼하실분
주중 : 오후3시~9시, 주말 : 오전8시~오후6시
영 스트릿과 칼리지 사이
598-1140

주방헬퍼2명,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 1명 구함
☎ 536-0290
한 국 관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윙

40대 전후한 여자분으로써 가게에서 뒷일 보아주실분 구함(힘든일 없음), 지하철 근처
☎ : 489-1650 3시~10시

애기와 살림해주실분 구함
☎ : 244-7303
663-1053

도나스샵에서 일할 여자분
풀타임 : 월~금(3~11PM), 파타임 : 토요일(3~11PM)
☎ : 482-4088

캐 비 넷 MAKER
FINE CUSTOM WOOD WORK.
GOOD PAY, BENEFIT
☎ : 742-7725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 244-5246, MRS. THOMAIDIS

"급 구"
TURTLE MOTHER OF PEARL INC.
● 나전기사 1명
● 나전칠기사 1명
● 최소5년 경력을 가진 분에 한함
☎ : 535-2143

가게에서 풀타임 또는 파타임으로 일하실분
남자분을 원합니다.
☎ : 248-6555

매매및 양도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시간 짧은 MALL안에 있는 스모크 샵
주매상 : 3천5백달러,
PICK UP드라이크리닝 : 주매상 1500달러,
드라이브 인 햄버거 플레스 : 주매상 6000달러
장래성 있는 베커리 도나스 가게
☎ : 741-9170, A. E. LEPAGE LTD. MRS. WOO

DOWNTOWN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FAST FOOD STORE임
주6일 영업 주매상 $2000 아스킹 $33000
☎ 536-0463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

매매 :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건물및 비즈네스 매매,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6500달러 이상
☎ : 535-7200 미스타 김

베커스토아 매매
오후 6시30분이후, 아침10~12시 연락바람
☎ : 439-3044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5200+로타리오 수입으로 렌트 충당함 호조건으로 양도코자 함
주소 : 3240 EGLINTON. E.

COUNTRY STYLE 도나스샵 매매
이주관계로 급매코자함. A급 프라자내
주매상 5천5백~6천,
꼭 사실분만 내방바람(오전7시~정오)
8141 Yonge St. THORNHILL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급 매
타사업 관계로 급히 매도코자 함. 관심있는 분의 직접 내방바람.
357 COXWELL AVE. TOR. ONT.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줌)
☎ : 781-7305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가게 매매
주매상 : $3000~$3500(특히 야채 적합함)
3888 BLOOR RT. W.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스토아 급매 : 2층집 달린 가게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766-9491

①관광지역에 위치하고 주유소를 겸용한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 & TAKE-OUT 스토아 매매
2 베드룸 포함, 1.5에이커 크기 ASKING $89.000
②바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매매, 그로스 $440.000이상, 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3베드룸, 아파트+2 베드룸 아파트렌트 월 $215 우편취급에 대한 매상 년 $11.000 ASKING $219.000
③관광지역, 타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스토아 매매
3 베드룸 포함, 그로스 $300.000, 좋은 장비완비 되었음. ASKING $129.500
CALL : SALES REP. IRVEN(RED) DeGraw
☎ : (705) 325-6069
WALTER DEAN REAL ESTATE LTD.
107 MISSISSAGA ST. E. ORILLA
☎ : (705) 325-6193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팀스 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집·방세·하숙

방세놓습니다 : 독신환영
HARBORD & CRAWFORD지역
☎ : 534-5327

2층집 독채 : 3 베드룸, 2 목욕실, 차고.
10월1일 입주가능 월650달러
☎ : 465-6067 제인과 써인 크레어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시설판매수리
에어콘·전기·개스·워킹쿨러, 후리저
☎ : (B) 746-3840, (R) 493-9945 김 봉 균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기 타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쉐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여권 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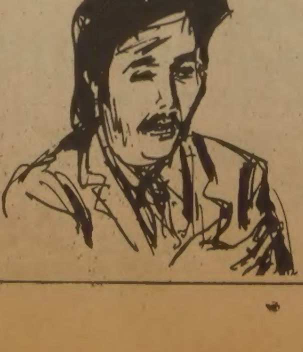
분실공고 : 여권을 분실하였기 공고함
1619 ANWORLD COURT. MISSI. ONT.
☎ : 531-3491 이 홍 범

여권분실공고 :
2431 FINCH AVE. WESTON #609
☎ : 741-0576 신 춘 자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한국일보사 광고부 533-2361-4

모눈종이 위의 生 <197>

灰色노우트 ⑳
趙善作 作
馬慶熙 畫



[illegible]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完全한新聞

「돗자리」관련議員 召喚조사

大檢 敎聯 經理不正여부 집중搜査

大檢은 세칭 돗자리공연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9일 돗자리를 받은 국회문공위 李興洙의원을 시내 모처로 불러 돗자리를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8일 하오늦게 大韓敎聯의 관계장부 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교련 사무총장 鄭石圭씨(56)、교직부장 韓京洙씨(42)와 총무과장등을 불러 교련의 예산상황과 지출내용등을 철야 조사하는한편 관련 국회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소환、돗자리 수수경위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특히 교련의 경리장부를 정밀조사、돗자리 구매과정에서 경리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등 공금유용부분도 캐고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교련으로 부터 돗자리를 공여받은 국회의원과 정당관계자는 모두 14명』이라고 밝히고 『교련이 당초구입한 돗자리 24장가운데 나머지10장은 한계원로와 교련내부관계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것이기때문에 이를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이들의 명예손상을막기위해서 그명단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鄭敎聯회장 辭退

鄭範錫 대한교련회장이 9일 국회돗자리사건과관련、사임했다.

鄭회장은 이날 『당초 순수한 뜻으로 출발한 돗자리 선물이 이같이 엄청난결과를초래한데 대해 교련최고책임자로서 온국민에게 깊은사과를 드린다』면서 『이번사건의도의적 책임을지고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鄭회장은 지난해 5월 郭鍾元 회장의후임으로 교련회장에 취임、11월에 임기를 끝낼 예정이었다.

돗자리事件관련 民韓、謝過성명

民韓黨은 9일 돗자리사건과 관련한 성명을내고 『民韓黨은 이른바 돗자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데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금할수없으며 다시는 이러한거북한일이 없기를바란다』고말했다.

金珍培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民韓黨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는 각자 개인이 지키도록 留意해야 할것이며 이러한일이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확대되어 국회의 기능이나 정당의활동에 영향을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柳致松총재는 이날 이번 사건이 직무와 관련된 賂物性의 사건이라면 당연히 刑事문제화가 돼야한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만일 의례적인 사건으로서 의원품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의원각자가 자율적으로 수습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WBC會長등 13명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9일상오 청와대에서 세계권투평의회(WBC)의 호세·술레이만 회장등 집행위원13명을 접견하고 환담했다.(사진)

이자리에는 鄭泰秀문교부차관과 梁正圭한국권투위원회회장이 배석했다.

議員9명에 警告서한

丁議長 全議員엔 청렴강조 親書보내

국회는 9일하오 돗자리사건에 관련된 9명의 文公委의원에게 丁來赫의장 명의로 『林在正의원의 건의서를 검토한바 이物議가 새시대새議會像정립에 逆行하는것으로 이번 말썽의 대상이 되신 귀의원에게 의장으로서 엄중한 警告를 드리게된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警告書翰을 발송했다.

丁의장은 이 경고서한에서 『貴의원께서는 法에 규정된 청렴의의무 品位유지란 의원으로서의 행동準則에 충실히 해야한다』고 말하고 『종전의 관행이되어온 인사의범위에 속하는 선물이라할지라도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엄격한 規準으로 규제해야한다는것을 특히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丁의장은 또 돗자리사건에 관련없는 다른의원들에게도 親書를 보내『새시대 새議員像정립을 지향하는 싯점에서 이런 물의를 일으켜 국민과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누를끼쳤으며 국회의위신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에 금이가게한 이사건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淸廉의무와 品位유지에 충실하고 직무수행에 연관이되는 선물은 스스로 規制해줄것을 당부했다.

돗자리사건을 수습하기위해 丁의장은 이날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의 건의에따라 처리방안으로 발송한 이 서한에서 『이번 정기 국회는 제5공화국발족 이후 처음으로갖는 정기국회이며 새國會法에 의해서 원만하고 충실하게 회의를 운영 함으로써 국민의기대에 보답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關聯者 더이상없다

24장중 國會·政黨배포돗자리 14장"

丁의장은 이날상오 民正黨의 李鍾贊、民韓黨의 高在淸、국민당의 李東鎭총무와 모임을갖고 돗자리사건에 관련된 의원에 대한처리방안으로 李興洙문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丁의장명의로 관련된 문공위소속의원들에게 경고서한을 발송하는한편 국회의원전원에게 丁의장의 親書를 보내기로했다.

이날회의가 끝난후 丁의장은 『3黨총무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의처리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는 어디까지나 도의적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한것이며 이로써 국회의 조치는 일단락되었다』고 말했다.

李民正총무밝혀

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 9일 『大韓敎聯이 선물한 돗자리는 모두 24장』이라고 밝히고 『그중 14개가 국회와 정당쪽에 배포되었고 나머지10장은 敎聯 관계사회인사에게 선물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정당쪽에 나누어준 14명의명단은 이미밝혀졌기 때문에 더이상 관련자는 없다』고 말하고 『敎聯측은 지난 7월2일 1차로 19장을구입 배포했고 7월23일 추가로 5장을 더사서 선물한것으로 안다』고밝혔다.

돗자리관련 議員 民正、常委재배정

民正黨은 9일 돗자리사건과관련된 黨소속의원들의 국회常任委의 재배정과 무소속이었던 玄敬大의원의 入黨으로 상임위원定數를 재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돗자리사건과 관련된 李興洙前文公위원장은 商工委로、康吉正前간사는 建設委로、또 商工委의 李建鎬의원이 文公委로 배정될것으로 알려졌다.

內務 農水産 建設委 水害조사반을 派遣

국회는 9일 全南및 慶南지역의 수해상황을 조사키위해 內務、農水産、建設委소속의원 18명으로 3개합동조사반을 편성、현지에 파견했다.

이틀동안 수해상황을 조사하는 합동조사반의 편성과 명단은 다음과같다.

▲慶南班(咸安·晋陽·泗川·河東·南海)=裵命國건설위원장(반장) 朴烱柱 申元湜 郭定鉉 趙一濟 柳尙昊 趙炳奎 ▲全南1班(寶城·高興·昇州·光陽)=李範俊농수산위원장(반장) 許淸一 李洪培 愼順範 柳晙相 ▲全南2班(長興·康津·海南·莞島)=金宗鎬내무위원장(반장) 金炯來 曺淇相 池槓道 李成一 丁時采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韓·日閣僚회의 오늘開幕

이틀간 兩國관계·經協등 具體협의

百億弗 차관절충 主要爭點

交易赤字·獨島시비 다룰듯

제11차 韓日定期閣僚會議가 10일 상오9시 서울 新羅호텔에서 개막된다. 지난78년 제10차회의에이어 만3년만에 再開되는 이번 정기각료회의에는 정부측에서 盧信永외무장관을 首席으로하는 9명의 閣僚級 대표가、일본측에서는 소노다(園田直)外相을 首席으로하는 7명의 대표가 참석、10·11일 이틀동안 ▲국제정세및 兩國관계 一般 ▲韓日양국간의 경제정세 ▲경제협력및 貿易등 경제관계 ▲其他등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벌인다.

이번회의는 제5공화국과 스즈끼(鈴木)內閣출범후 양국이갖는 첫각료회의라는 점에서 韓日관계의 再定立을위한 양측의노력과 구체적인협력방안이 집중논의될 예정인데 특히 지난달의 外相회담에서 한국측이 安保經協의 連繫차원에서 日側에 제시한 60억달러의 公共차관과 40억달러의 商業차관등 모두1백억달러의 借款요청에대한 日側의 구체적인 額數제시와절충이 주요爭點이 될것같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통해 安保經協의 名分과 妥當性을 거듭강조、日側에 요청한 1백억달러의 借款內譯을 프로젝트별로 설명하는 한편 소련의 세력팽창등을 저지하기위한 安保分擔의견지에서 日側의 보다성의있는 對韓협력자세를 강력히촉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1백억달러의 內譯과 근거를 구체적으로제시、向後5년간 한국의 軍事力이 北傀수준에 도달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國防費부담액이 1백50억달러에 이르며 日側에 요청한 1백억달러는 이 추가소요분의 3분의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들어 對韓차관의 當爲性을 강조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정도의 日側부담은 東北亞안정을위해 또 日本이 共有하는 安保의代價를 감안할때 너무나도 가벼운부담이며 이정도의 資本移動은 東北亞의 경제적번영과 안정을위해서 不可缺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實例를들어 立證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10일상오의 全體會議에이어 해당部處別로 閣僚간 단독회담으로 진행되며 11일낮 공동성명을 채택후 폐막한다.

정부는 공동성명文案에 한반도정세에 대한 日側의安保觀과 經協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日側은 微溫的인 입장을 고수하고있어 공동성명대책을 놓고 양측은 또한차례의 고비를 맞게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의 安保經協외에 ▲65년 國交정상화이래 2백5억달러의 累增기록을 보여온 慢性的인 交易赤字幅의 해소 ▲在日동포 法的지위보장 ▲織物·신발류등 對日주요 수출품목쿼터再조정등 고질적인 현안문제와 최근 日巡視船의 獨島근해 침범으로 再燃된 領有權시비등이 추가議題로 다뤄질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회의에 참가하는 소노다(園田直)外相등 일본측각료6명은 9일 하오3시20분 공·비공식수행원 40명과함께 專貫機便으로來韓、숙소인 新羅호텔에 旅裝을풀었다. 日本側 대표단은 이날 저녁 외무부와접촉을 사양한채 회의에앞서戰略을협의했다. 日本대표단의 滯韓및 會議日程은 다음과같다.

◇10일 ▲상오9시~정오=각료회의 개막식및 전체회의(新羅호텔) ▲낮12시30분~하오2시30분=각료별 업무회담을 겸한 午餐(호텔및 별도장소) ▲하오3시30분~5시30분=板門店시찰 ▲하오7시30분~9시30분=盧信永외무장관주최 만찬(漢南洞외무장관공관)

◇11일 ▲상오9시~10시=個別閣僚會談(部處별) ▲상오11시30분~하오1시30분=공식수행원을 위한 제5차 5개년계획 브리핑 ▲하오2시~2시30분=제2차전체회의 ▲하오2시30분~하오5시=공동성명채택및 폐회식 ▲하오5시=日側대표단 離韓

3년만에 열리는 韓日각료회의는 韓日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계기가 돼야한다는게 모두의 바람이다. 韓日각료회의에 참석하기위해 9일하오 공항에 도착한 소노다(園田直)일본외상(右)은 盧信永외무부장관의 영접을받고 환한웃음을띠며 밝은분위기를 보였으나 이러한 분위기가 과연 회의가 끝날때까지 지속될것인지 두고봐야 할것같다. 【李鐘기자찍음】

東歐圈에「自由革命」수출

波勞組전국大會 노동자會議결성을 촉구

【바르샤바8日AP=聯】폴란드 자유노조(솔리다리노스크)는 제1차 전국대회 4일째인 8일 소련을 비롯한 全東歐共産圈에 자유노조운동의 확대를 촉구하고、노동자들의 자율경영을위한 국민투표실시를 제의함으로써 폴란드內政개혁과 자유혁명수출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자유노조제1차전국대회가 채택한 메시지는 폴란드자유노조가 1천만 노동자를대표하는 진정한 노동자대표기구이며 솔리다리노스크의 목표는 생활개선에 있다고 말하고 『東歐노동자들이 자유노조운동을위한 험난한 투쟁을 결심할경우 기꺼이 이를 지지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메시지는 알바니아·불가리아·체코·東獨·헝가리·루마니아및『전체소련인민』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밝힌 후 『이들 東歐관영 언론기관이 조작하는 거짓보도들을부인하고 상호경험을 교환하기위해 東歐노동자회의를 갖게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말했다.

서방업저버들은 이 메시지가 솔리다리노스크를 탄생시킨 『혁명』을 수출하려는 기도로서 자유노조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고 소련행동을 설득해온 폴란드지도층을 크게 당혹시킬것이라고 말했다.

日大使館 밝혀

90일이내觀光·시찰 公館長이 비자발급

駐日일본대사관은 9일 한국인에 대한 일본入國査證(비자)발급을 완화、90일이내의 관광·시찰·국제회의참가·短期商用·친족방문등에 대해서는 본국정부의 조회없이 공관장이 비자를 발급키로했다고 밝혔다.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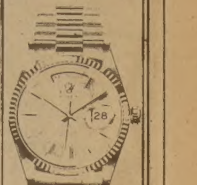
이니

問責

地平線

君子에는 三樂이 있다한다。부모가 무고하시고 형제에 별탈이 없으면 一樂이다。하늘을 우러러보고 부끄러움이 없고、땅을 내려보아 잘못된 일이 없으면 二樂이다。그 위에 천하英才를 모아 교육시킴이 三樂에속한다。이 세번째樂을 누리는 것이 말하자면 가난한선비―교원들이라고 할수있다。묵묵히 교육에만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는 교원들이 우리나라에만 수십만명이나있다。▼지금은 돌아갔지만 五山學校를 설립한 南岡李昇薰선생은 일찌기 교육으로 올바른 인재를 길러 내는 일외에 민족을 이끌고갈 길이 없다고 말한일이있다。南岡은 동양의 세나라、한국、일본、중국이 각각평등한자리에서서로 돕기를 원했지만 스스로의 힘을 길러 올바른 교육과 민족의 품위를 높여야한다고주장했다。南岡의 뜻이 살아있는이때、민족교육이 본궤도에 오르고 민족의 품위를 격고 三樂을펫는 極言를 일본 소노다外相이 서슴없이 했다고 우리나라 사립 중고교교장들이 분격하고 있다。▼「한국의 교육세를 일본에서 대신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소노다發言은 내정간섭적인발언으로서 그 간교하고 오만한 태도에 울분을 금할수없다며 그 교장회의서 드디어 성명을 낸것이다。「2차대전후 미국의 경제원조중에서도 교육비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자만하는 일본이 한국의 교육세부담 운운한것은 한국 교육자들에게 모독감을 주는것이고 국가백년대계를위한 교육비만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국민스스로의 힘으로 후세를 위해 떳떳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것이다」라고 성명은 강조하고있다。▼36년간 우리말을 뺏고 우리글을 못 가르치게한 일본이 이제와서 經協에는 엉뚱한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굳이 교육세원을 비치는것은 속이보이는 얄팍한 망발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한국이 일본에 요청하고 있는것은 원조가 아니라 연간 12억달러의 公共借款이다。對日무역적자가 2백억달러를 넘고있는 현실에서 동북아의 군사력균형을통한 평화유지를 위해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제協力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미국은 6·25때 2백억달러의 戰費부담말고도 1백31억달러의 有無償원조를그간 해왔다。한데 일본은 지금껏 13억달러의 公共借款밖에 한것이없고 공짜安保에 기대고 있는터이다。▼植民地통치가 한국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久保田妄言이 아직껏 잊혀지지않고 있는때 한국땅을 찾아온 소노다외상에게 三樂의 참뜻이나마 깨우쳐주고 싶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39
은: 온스당 US 10.1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532-2727

Daily Newspaper ·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토론토한인골프협회
1981년도 ANNUAL 골프시합

장　소: CASTLEMORE COUNTRY CLUB
시　일: 1981년9월19일(토요일) 오전10시부터
참가비: $30.00　: $30.00
참가자격: 카나다거주한인(선착순60명)

접수연락: 정정홍(678-2444)
원장호(889-3544)
김만구(486-0397)

시　상: ◆남자부
GROSS 1등— 협회 애뉴얼·컵
MOLSON 애뉴얼·컵
GROSS 2등 〃
GROSS 3등 〃
NET A 1등— 협회 애뉴얼·컵
2등 〃
3등 〃

NET B 1등— MOLSON 애뉴얼·컵
2등 〃
3등 〃
롱게스트·드라이브·콘테스트
니어리스트·홀
스트레이트·볼
모스트·온네스트·골퍼

◆여자부
GROSS 1등— 협회 애뉴얼·컵
2등 〃
3등 〃
NET 1등 〃
2등 〃
3등 〃
MOST HONEST 골퍼
외 많은 상품이 있음

주최: 토론토한인골프협회　후원: MOLSON

과격한 反蘇발언 滿發

실질적 議會로 自處 報道기관 保有 요구

波자유노조 全國大會

◇表決중인 波자유노조大會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 (전열가운데)와 자유노조대의원들이 8일 속개된 자유노조전국대회에서 손과 흰카드를 들어 표결하고있다。【그다니스크 8日AP特約=聯合】

蘇가 造作한 폴란드歷史 바로 잡아야한다
우리는 黨의 노예로 養育되길 願치않는다
共産黨은 眞理와 우리의 빵을 약탈해갔다

【그다니스크9日聯合=綜】 제1차폴란드자유노조전국대회는 폴란드사회에서의 진혁명의 심화를 강조하는대의원들의 발언으로 점차과격성을 띠고있다. 공산권사상 최초의이자유노조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거리낌없이 反蘇를 말했고 당당하게 세계2차대전이래 이가톨릭국가에 도입된 소련공산주의에 반기를 들었다. 많은 발언자들은 앞으로

관리권을 국민에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지난56년 反蘇폭동의 진원지 포즈난출신 대의원은 공산당은 경제및 매스컴에 대한 통제는 포기하고 군대와 정치만 돌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의 독립보장을 위해 군대및 정치만은 공산당수중에 남겨둬야 한다는 현실론을 그는 폈다. 로드시출신 대의원은『우리는 수년간의 투쟁을통해

절대 정의 투쟁은 원치않으나 조직적으로 대비는해야한다. 우리는 노조행동이 노동문제취급에 국한돼야 한다는 요구에 반대해야한다. 그같은 제한은 민주주의국가들에서만 가능한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바르샤바대표는『우리는 공산당이 처음에는 우리들에게서 진리를 빼앗아갔고 35년뒤에는 빵까지 약탈해갔다는것을 명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얼버무려놓은 부분을 바로잡은 새로운 폴란드 역사책을 펴내라고 촉구한것이다. 예를들면 2차대전중 소련군에 체포된 폴란드관리 1만명이상이 스탈린 치하에서 살해되었다는 사실등이다. 이 학살행위는 카틴삼림에서 자행된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 폴란드에서는『카틴』이라는 단어자체가 깊

그는『폴란드의 1천년 기독교전통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가치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인내를 방어하고 실현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라고주장했다. 자유노조대변인 오이츠키에비츠는 폴란드의 사실상의 의회로 묘사되고있는 이번대회의 도전적인 분위기를 전하면서『장래는 대회에서 곧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당칠 시련풍파를 경고하면서 폴란드가 소련과의 대결에 직면할것이라고 공공연히 예견했다. 한대의원은 3일 『공산당은 당출판물을 규제하고, 국영라디오및 TV에대한

지나치면 대결위험에 직면한다는 행동의 한계성을 배웠다. 우리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바르샤바지역 출신의 또 다른 대의원은 『노조는 직

그는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보도기관을 보유해야하며 청년들의 교육은 집권정당에 의해서가아니라 사회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우리는 黨의 노예로 양육되길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8일 회의에서 통과된많은 급진적 결의안중 하나는 관제공산주의 책자들이

이 뿌리박힌 反蘇감정의상징이 되어왔다. 소련은 나치독일군에 의해 그들이 살해되었다고말하고있다. 또 코스찰린지역 대표는 『자유노조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 재정적 착취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를 바라고있다』고 말했다.

폴란드病이 두려운 東歐

東獨 사회주의「刷新不容」선언
체코 反體制세력 늘어나 당황
루마니아 勞組의 自主的運營비쳐

自由化 운동으로 집약되는 이른바『폴란드病』이 번져올까 두려워하는 건 東歐 공통의 속사정이다. 그런데 폴란드自由노조대회는 마침내 소련까지 포함해서 東歐제국의 노조에 自由化투쟁을 벌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집안단속에 신경을 써온 東歐공산국의 최근 동정을 진단한다.

◇헝 가 리

폴란드노조가 파업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해8월 헝거리의 곳곳에서 노조의 파업이 일어났다. 헝가리 노총위원장 산도르·가스파르는 한신문과의 인터뷰에서『일부공장들이 파업을 단행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어 헝가리노조가『힘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파업이 필요없음에도 지방노조가 파업을 단행했다고 불평했다. 헝가리공산당의 장악하에 있는 헝가리노조지도부로부터는 폴란드식 「자유의 물결」이 생성되기 어려울것 같다.

◇東 獨

동독공산당지도자 에리히·호네커는 지난4월11일 5년만에 개최된 제10차동독공산당대회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사태에대해 언급, 자유노조를 맹렬히 비난했다. 호네커는『어떠한 나라도 사회주의를『쇄신할수없다』고 말해 폴란드의 소련형사회주의 탈피기도를 공식적으로 공격했다. 한편 폴란드의 민주적개혁조치에 자극받은 동독의 반체제인사들은 지난8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 동독공산당을 긴장시켰다.

◇루 마 니 아

루마니아 공인노조 총회는 지난4월8일▲노조의 민주화▲노동자 생활여건의 개선▲국내외 정책에대한 국민의 참여증대▲노동자자율관리추진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채택했다. 서방관측통들은 이 결의안이 폴란드사태에 자극받아 나온것으로 정부와 공산당지도자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문제를 인식케하여정책범위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것을 촉구한것으로 보고 있다.

차우세스쿠 대통령도 이결의안에대해『노조를 보다 자주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공산당이 노조를감시해서는 안되며 노조내의당원과 협조할것등을 다짐하여유화적인 태도로「폴란드病」을 예방하려 부심하고있다.

◇체코슬로바키아

68년 거세게 일어난 자유화물결이 소련군화에 짓밟혔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당국은 현 폴란드사태가 파급될 가능성을동구어느나라보다 경계하고 있다. 자유화물결의 파급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지난4월 체코공산당 제16차당대회에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이 돌연 참석한것으로도 쉽게 알수있다. 체코당국은 체코 당대회가 열리기를 전후해서 「77인권헌장」에 서명한 반체제인사 30여명을 체포했다. 체코당국은 지난77년 국민들의 사상자유를 자극할 목적으로 발기한「77헌장그룹」을 수시로 탄압해 왔음에도 속도가 느리기는 하나 반체제세력이 계속 늘어나는데 당황하고있다. 프라하의 서방소식들은 체코당국이 당분간은「77헌장그룹」을 무력화할수 있으나 그 세력은 꾸준히 내연할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소 련

폴란드사태의 진상이 국내에 알려지는것을 꺼려 폴란드및폴란드접경국가의 여행을 억제하고있다. 언론도 80년7월 폴란드사태가 발생한이래 보도를삼가고있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폴란드사태에 관련된 보도는『폴란드에 반혁명세력이 암약하고있다』면서 폴란드사태를 반사회주의 음모로 규정하는데 쏠리고있다. 프라우다紙는 지난4월15일 처음으로 카틴숲의 폴란드군대량학살사건에 언급,『일단의 반혁명분자들이 최근 바르샤바에서 카틴학살40주년을 기념하는『악마의연회』를 벌이고있다』고 비난하고 폴란드당은 이같은 반혁명움직임을 타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알 바 니 아

발칸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동구권의 작은나라 알바니아는 사회주의 국가이긴하지만 46년 정부수립과동시 소련을 비난함으로써 직접적인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있다. 폴란드자유노조운동의 영향을 직접 받지않는 유일한 동구권국가가될것이다.【外信部】

前푸에블로號艦長 부커
畵家로 「제2의人生」

◇그림에 전력을 쏟고있다고 말하는 부커씨。그의 그림은 한폭에 5백달러 (35만원) 정도에 팔린다。

【샌디에이고=로스앤젤레스支社 邊鴻鎬기자】 지난68년 美첩보함 푸에블로號와 함께 북한에 납치돼 11개월동안 억류생활을했던 로이드·부커함장 (예비역 중령)은 이제 화가로 직업을바꿔 샌디에이고에서 제2의 인생 길을 걷고있다.

샌디에이고근교포웨이에서 부인로즈여사와 함께살고있는 부커함장은 자기생일은 두개라고 웃으며 말했다. 진짜생일은 9월1일이며 또하나는 북한에서 억류생활끝에 석방된 12월24일이『제2의 인생』으로 태어난 생일이라는것이다.

그는 북한의 SR71기도발사건을 듣고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만이효과적인 대처방안』이라고 말했다.

”生日 2개„…抑留생활 되새겨
석방후 美術전공하며 轉身
北傀 도발엔 強力한 응징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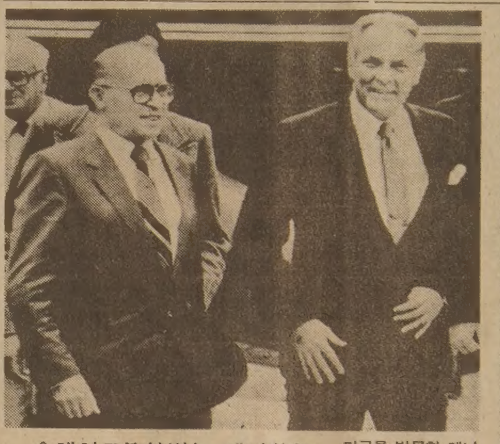
그는 또『북한을 한국동란이후 국제사회의 이단자』가 되었다고 비난하며『현재까지 남북대화를 거부하고있는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부커씨는 지난 77년부터 미술에 심취되어 1년동안 대학에서 전공까지한후 이제는 매년 40여점의 작품을 그려내는 화가로 변모했다. 그의 그림은 한폭에 5백달러를 호가하는수준。

푸에블로호의 당시 승무원중 아직도 20여명과 계속 접촉을갖고있다고 말하며『지금도 납치됐던 승무원중 2명이 북한의 고문으로 입은 상처를 치료받고 있다』고 분개했다.

부커씨와 함께 자리를같이한 로즈여사는 남편이억류됐던 11개월을 되돌아보며『남편이 적지에 갇혀있는 쓰라림도 컸으나 당시 미국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마음을 더 슬프게했다』고 말했다.

부커씨는석방된후 한국민으로부터 6통의 위로편지를 받았다면서『따뜻하고 인정이넘치는 위로의 편지를읽고 내가 수행한 임무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헤이그迎接받는 베긴首相 미국을 방문한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左)이 워싱턴에 도착,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의 영접을 받고있다。【워싱턴 8日AP特約=聯合】

日、中共에 13억弗借款
大慶石油化學·寶山製鐵건설계획

【北京8日AP=聯合】 일본은 중공의 주요산업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13억달러상당의 엔차관을 중공측에 제공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중공의 실권자인 鄧小平黨부주석은 이에대해 만족을 표명했다고 8일 일본관리들이 밝혔다. 이 관리들은 니까이도·스스무 (二階堂進) 日自民黨총무회장이 지난7일 中共부수상 谷牧과 일본의 對中共엔차관제공문제에 합의한후 8일 鄧小平과 만났다면서 그같이 전했다. 이관리들은 양국이 차관의 세부사항들에관해 협상을 계속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니까이도회장이 이 협정을 마무리짓기위해 谷牧을 東京으로 초청했으나 일자는 아직 결정되지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축소를 이유로 수백만달러상당의 對日계약을 취소한바있는 중공은 이차관제공으로 大慶등의 석유화학시설및 上海부근 寶山제철소등의 건설계획을 재개할수있게 됐다.

中共, 航母도 建造

【홍콩8日=聯合】 중공해군은 核잠수함의 시험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항공모함의 건조계획도 갖고있다고 8일 홍콩의 中共系 일간 大公報가 보도했다. 大公報는 中共해군에 일단의 함재기조종사들이 탄생했으며 이조종사들이『인민해군함재기부대의 창설을위해 고귀한 경험을 제공했다』는 中共黨기관지 人民日報의 보도는 중공의 항공모함건조계획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波外債상환延期 검토
美·佛등西方채권국代表회담

【파리8日聯合=綜】 미국·프랑스·서독·오스트리아·영국등 주요 폴란드 채권국 대표들은 9일 파리에서 회담을열고 폴란드의 82년도분외채상환을 연기하는문제와 고질적인 폴란드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검토한다고 외교소식통들이 8일 밝혔다.

이들 채권국재정전문가들은 對폴란드원조필요성을 검토하고 내년도분부채상환연기문제도 토의할 가능성이있다고 이소식통들은 말했다.

이번회의는 또 내년도부채상환연기문제를 공식논의하기위한 15개채권국과 폴란드간의 전체회의개최일자를 정할것으로 알려졌다.

15개채권국들은 지난4월 폴란드의 올해차관상환분중 약26억달러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기해주기로 결정했으며 지난7월 민간은행들도 폴란드에 24억달러의 올해분 외채상환을 연기해주기로 했었다.

核공동開發說 自由中國부인

【臺北8日聯合=綜】 자유중국은 8일 자유중국과 이스라엘, 남아공화국 3국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일본측 보도를 부인했다.

革命전 石油契約전면取消
이란, 多國籍會社들에通告

【니코시아(키프로스)8日AP=聯合】 이란은 8일 지난1979년 회교혁명이전에 多國籍석유회사들과 체결한 모든 계약을 취소했다고 이란石油省이 발표했다. 이란회교 파르스통신이 보도한 이 발표문은 계약이 1973년 쿠데타이후 미국·영국·네덜란드·프랑스 석유회사들과 체결된것들이라고 밝혔다. 이발표문은 이같은 취소결정이 石油省특별위원회가 단행하여 관련회사들에 통고되었다고 말했다.

蘇에港灣시설開放
리비아, 무기供給협상타결代價

【시카고8日AP=聯合】 소련은 리비아와 또다른 무기공급협상을 타결했으며 그 댓가로 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대통령은 리비아의 항만시설을 소련의 지중해함대에게 개방키로 동의했다고 미국의 시카고·트리뷴紙가 8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이날 텔아비브주재 中東특파원 발신기사를통해 그같이보도하고 소련은또 요르단에도 처음으로 최신방공체제를 공급키로 비밀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스라엘의 고위정보소식통들을 인용,가다피대통령이 지난여름중 앞으로 5년간 T72탱크와 샘9地對空미사일및 미그25전투기등 소련제무기를 추가공급받는 대금으로 50억~1백억달러를 지불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濠해안에 고래떼 약 1백80마리의 고래들이 濠洲타스마니아섬 해안에 밀려들어 오도가도못하고있다。주민들은 강풍과 심한 파도때문에 이들 고래를 바다로 되돌려보내는데 애를먹고있다。【타스마니아(濠洲) 8日UPI特約=聯合】

海外토픽

동물遺傳因子 移植 ★美 오하이오大서 成功

美 오하이오대학 과학자들은 사상처음으로 한 동물의 유전인자를 다른동물에 이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동물품종개량과 인간의 유전공학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8일 발표했다.

미분자 유전학자인 토머스·와그너박사는 5명의 유전학 연구팀이 토끼의 헤모글로빈 유전인자를 쥐에 이식시켜 이 형질이 최소한 2대에걸쳐 나타나게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와그너박사는 이 새로운 유전인자이식술은 같은품종의 동물사이에는 물론 다른품종의 동물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방법으로 가축의 품종개량기간을 대폭 단축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와그너박사는 또 앞으로 언젠가 이 방법을 인간에게도 적용, 유전병을 방지하는 등 유전공학에도 이용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애덴즈(美 오하이오州) 8日AP特約=聯合】

오늘의 小史 <10일>

▲英·蘇 통상협정 체결 (1946)
▲西獨,對이스라엘 배상협정 조인 (1952)
▲佛·모로코 자치협정 조인 (1955)
▲OPEC 발족 (1960)
▲自由言論수호연맹 발족 (1964)
▲商工部,최초의 不良商品전시회 개최 (1970)
▲英·유고여객기 충돌,탑승객 전원死亡 (1976)

메아리

「外道」의 사기

正道가 아닌 「外道」를 불교에선 원래 파라문교나 老·莊을 가리키는 말로 써왔다. 또한 불교안에서의 이단과 邪說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래서 외도의 人相은 邪惡·醜面의 가면으로 그려낸다. 이말이 세속으로 흘러 남녀간 탈선의 뜻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에 전래된 불교는 삼국시대와 고려를 통해 수많은 高僧을 낳았다. 抑佛崇儒의 조선조에서도 그 願力은 끊임없이 뛰어난 승려의 자취를 역사에 남기고 있다.

불교근대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萬海 韓龍雲을 꼽는다. 그는 불교계가 진리의 역군으로 사명을 못다한 안타까움을 구도자로서 애타게 호소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그 호소의 결정이다.

萬海의 불교는 寂滅의 종교가 아닌 활동적인 신앙이었다. 「불교는 절에 있는가。아니다。경전에 있는가。아니다。불교는 모든 사람의 정신적 생명에 존재하며 그 자각에 존재한다」고 갈파했다.

「호국안보대법회」라는 어마어마한 위선의 가면을 쓰고 「外道」들이 한탕의 사기극을 빚어냈다。이미 승적을 박탈 당한 두 사기승이 불교의 이름을 팔아 천만불자의 열망에 어이없는 먹물을 뿌린셈이다.

布施의 명목으로 1억원을 사취하여 외도에서 버렸다。고위층을 팔고 불교계의 후원을 가장하면서…。보시(布施)는 범어로 dana。본뜻은 신도들이 승려에게 청하여 독경이나 불사를 하고 그 사례로 내놓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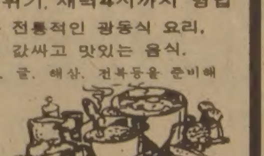
고위층과 저명인사의 이름을 나열하고 팔았다는 점에서 이 사기극은 얼마전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한국노년복지회사건과 너무 흡사하다. 두 사건을 놓고 볼때 요즘세태는 아무래도 권력과 명예를 지닌 「이름」에 너무 약하지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사기술에 쉽게 넘어가는 「心弱」을 먼저 탓하지 않을수 없다. 사기한들의 술수가 그렇게 어리숙하지는 않을것이다. 속임수란 奸智가 없어서는 성립이 안된다。그러나 한발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자. 2백만의 대집회가 그리 쉬운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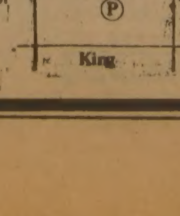
조그마한 깨달음이 있었어도 「布施의 자비」는 강요당하지 않았을것이 분명하다。萬海의 말대로 믿음은 「각자의 자각에 있음」을 뉘우쳐야한다. 이것이 「大悟」의 길이다.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 ~ 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 ~ 2 : 00AM
(금, 토, 일 - 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 ~ 4AM
토요일 일요일 : 12PM 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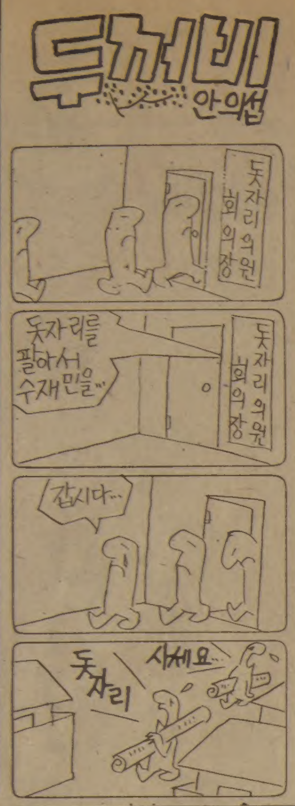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 - 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 - 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 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 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광고문의 533-2361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롯데、優勝문턱서 덜미

實業야구 投手난조…韓一銀에 8-3

실업야구 후기 1차리그 우승을 코앞에 두고 롯데가 선발투수 桂澄鐵의 난조로 1회말 무사상태에서 6실점、韓一銀에 덜미를 잡혔다。 승승장구、전기 종합우승에 이어 후기 1차 우승에 반게임으로다가선 롯데는 9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14일째 경기에서、선발 桂澄鐵이 연속3포볼을 허용한데 이어 내야수들의 2실책에다 한일은행의 6번 柳承安의 결승 3점 호머로 8-3으로 무너졌다。 최소한 비기기만해도 우승할수 있어 느긋해진 롯데 朴永吉감독은 桂澄鐵을 선발로기용。 그러나 桂는 갈피를 잡을 수없는 투구로 연속3포볼을 허용하고 3점호머를 얻어맞아 5승1무2패를 기록、우승에서 오히려 한발 물러섰다。

롯데는 14일 星武와의최종전으로우승을결정짓게된다。 이날 현재 經理團이 4승2무2패로 2위、韓一銀이 4승3패로 3위를 마크하고있으며 商業銀·韓電·韓國化粧品·農協의 4개팀이 공동4위를 이루고있다。

◇제14일전적

성무 400 000 000-4
한국화장품 202 200 00×-6
▲홈런=金鎭雨(1회·2점·성무) 金在博(3회·2점·한화)

롯데 100 101 000-3
한일은 601 100 00×-8
▲홈런=金成琯(6회·롯데) 柳承安(1회·3점) 禹龍得(4회·이상한일)

◇제13일전적

한일은 000 001 000-1
포철 120 000 00×-3
▲홈런=朴庸成(6회·한일)

韓國、55분만에 西獨 완파

世界 남자주니어排球 李鍾敬·文湧冠 맹활약

브라질은 美꺾어 2연승

【스프링스 (콜로라도) 9日=聯合】 한국남자주니어배구대표팀은 9일 새벽(한국시간) 이곳 공군사관학교 체육관에서 속개된 제2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준결승리그 첫경기에서 西獨을 55분만에 3-0으로 완파、1승1패를 기록했다。 기량에서 西獨을 압도한 한국은 첫세트에서 강스파이커 李鍾敬의 타점높은 강타와 재치있는 페인트작전에다 文湧冠의 속공이 불을 뿜어 15-2로 가볍게 세트를 선취했다。

2세트에서 한국은 역시주공 李鍾敬의 오픈강타를 중심으로 李凡石·朴炯用의 대각선 보조공격이 활기를띠어 범실이잦은 西獨의 추격을 15-8로 뿌리쳤다。 마지막 세트에서도 한국은 鄭龍河의잇단 서브 포인트 3개와 文湧冠·朴炯用의 철벽블로킹으로 착실하게 포인트를얻고 李鍾敬의 강타로西獨 수비를 흔들어15-6으로끊고승리했다。

한국은美國-브라질의경기결과에 따라 4강진출의 운과이 드러난다。

한편 브라질은 홈팀 美國을 3-0으로 완파、2승으로 4강진출이 확정됐으며 한국과 美國은 1승1패로 공동 2위를 달리고있다。 한국은 10일상오11시 美國과 준결승리그 마지막경기를 벌이는데 전력으로 보아 美國을 꺾고 브라질과 함께 4강에 오를것으로 기대된다。 B조에서는 소련이 2승으로 4강에 올랐고 쿠바와 中共이 1승1패로 공동2위를 마크했다。

◇준결승리그 1차전
◇A조
한국(1승1패) 3 (15-6 15-8 15-2) 0 서독(2패)
브라질(2승) 3-0 美國(1승1패)
▲B조
소련(2승) 3-0 아르헨티나(2패)
쿠바(1승1패) 3-1 中共(1승1패)

準決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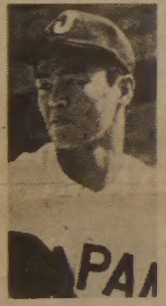
韓·日卓球교류 10년만에 再開

한국탁구가 10여년만에 日本과 교류를 재개、경기를갖게됐다。 탁구협회는 日本탁구협회의 호응을 얻어 오는10월 국가대표급선수들을 배출해낸 긴끼(近畿)대학팀을 초청、釜山에서 친선경기를 갖기로했다。 日本협회는 금년에 近畿大외에 第一勸業銀行등 2개팀을 더파견할 예정이다。

統一旗대학야구 延大패권

【大邱=聯】 제4회 통일대기쟁탈 전국대학야구대회가 9일 大邱시민운동장에서 폐막、延世大가 東亞大를 2-1로 물리치고 4連覇의 영예를 차지했다。 李吉煥이 완투한 延世는 3회초 데드볼로 나간 金東再를 2번 李順喆의 2死후 우중월 2루타와 東亞유격수 朴榮泰의 3루전제 악송구를 틈타 2점을 뽑아내 전세를 뒤집으면서 끝까지 리드를 지켜 승리했다。

◇최종일 결승전
연세 002 000 000-2
동아 010 000 000-1



日프로 巨人팀 金義明 드래프트 1위로

契約金 1億엔說도 파다

재일동포야구선수 金義明(報德學園高3년)을 일본프로야구 巨人팀(요미우리·자이언트)이 드래프트1위로지명했다고 9일자 닛깐스포츠紙(日刊스포츠)가 1면톱으로 보도했다。

닛깐스포츠에 의하면 7일하오 巨人구단본부에서 열린제1차스카우트회의에서금년도고오시엔(甲子園)의 종합선수로 하라(原辰德)—金의 활솜 슬러거콤비의 탄생을 겨냥키로 했다는것이다。

대회에서 5할4푼5리의 높은 타율을 보인 金의 소질을 높이 평가、장래 팀의 공세」가 예상되고있다고 보도했다。

닛깐스포츠지는일본의12개프로야구팀 가운데 巨人팀을비롯 大洋、야쿠르트、阪神(이상센트럴리그)、롯데、일본햄、阪急、南海(이상 퍼시픽리그)등 8개팀이 금년도 고교선수베스트3에 金을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하고 金을 둘러싼 쟁탈전이 금년가을 프로야구스카우트전의초점이 될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교선수스카우트사상처음으로 계약금조의「1억엔」… 선수의 연고지인 오오사까(大阪)의 한뀨(阪急)、롯데、다이요(大洋)등 다른 프로팀들도 金을 드래프트1위로 내정하고있어 드래프트회의는오는12월25일東京에서열린다。【東京支社】

서울市長 西獨에

24일 올림픽誘致團 인솔

朴英秀서울시장은 88년에 열리는 제24회 올림픽개최지를 결정하게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기위해 총회가 열리는 西獨의 바덴바덴으로 24일 출발할 예정이다。

9일 서울市에 의하면 朴서울시장은 曺相鎬 KOC위원장、鄭周永유치추진위원장등 재계및 체육계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유치사절단과함께 바덴바덴에가 88년올림픽서울개최를위한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펼 예정인데 26일에는 총회에서 올림픽대회개최신청지역시장으로 제안연설을 할 예정이다。

裵錫哲 마지막트레이닝

【부에노스아이레스8日UPI=聯】세계권투협회(WBA)의 주니어·밴텀급 타이틀을 놓고 12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의 구스타보·바야스와 대결을 벌일 韓國의 裵錫哲선수는 8일 마지막 트레이닝을 가졌다。 裵錫哲선수는 이날 아르헨티나의 오스카르·바에호선수와 2라운드 스파링을 가졌는데 현지권투관계자들은 그가 동작이 빠른 아웃복서타이프지만 허점이 많다고 지적、바야스의 무난한 승리를 예언했다。

블론디 딘·영作 本本特約·連載漫畵

"그꽃 누구에게 줄것인가, 대그우드?" "마누라를 놀라게 해 주려고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고있는지 마누라가 알아줬으면해서요"
"나도 마누라한테 그런식으로 뭔가 해야되겠는데" "정말 그러셔야죠"
"자네 내가 이런식으로할걸 알았지"

金良子 亞洲新(非公認)

전국射擊 空氣권총서 379點

제6회 육군참모총장기쟁탈 전국사격대회 이틀째경기가 9일 泰陵종합사격장서속행、여일반공기권총서 金良子(기업은)는 379점을 기록、비공인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제2일 기록
▲여일반공기권총=①김양자(기은) 379(비공인 아시아신·종전 377) ②임민자(지도단)377 ▲러닝보어혼합=①李苗根(지도단)378 ②朴贊世(〃)378 ③李龍烈(〃)378(이상대회신·종전373) ▲군인권총=①박흥선(45구경)289 ▲군인M16소총=①서범석(1725)288 ▲남자소구경복사=①윤덕하(국민은)597 ▲동여자=①고영희(국민은)585 ▲남자자유권총=①이원석(지도단)555 ▲남자속사권총=①박종길(지도단)596 ▲남대공기권총=①서인택(광운공)561 ▲동여대=①김은숙(인천체)344 ▲사회단체공기권총=①김종길(국민은)572 ▲동개인=①국민은행2224 ▲남일반사회단체=①185 ▲스키트=①김영진(지도단)185 ▲트랩=①최정룡(경북)188 ▲총혼성=①국민은2247 ▲동개인=①김승규(국제상사)568 ▲남일반공기소총=①윤덕하(지도단)573

成大、商銀격파

全國테니스 單複式 3대0

제7회 대통령기 전국남녀테니스대회 3일째경기가 9일 장충코트에서 열려、남대일반부에서 成均館大가 강적 商業銀行을 3-0으로 완파、파란을 일으켰다。

成大는 이날 단식의 梁炳圭가 商銀의 노장 張裕根을 6-4、6-1로、제2단식의 李龍洙가 전국가대표 金奉奭을 6-2、6-4로 제압하고 복식에서 金奉林·梁炳圭조가 商銀의 金奉奭·張裕根조를 7-6、4-6、6-1로 눌러 완승을 거두었다。

남고부에서는 濟州商高가 蔚山工高를 3-0으로、사레지오高가 公州高를 3-1로 각각 눌러 결승에 진출、패권을 겨루게 됐다。 여일반부의 農協은 慶國大를 2-0으로 제치고 결승에 선착했다。

◇大宇의 金榮煥이 明知大 金春浩와의 대전에서 하프발리로 볼을 넘기고있다。

한국일보

나의 이력서

〈 題字·尹 敬 暎 〉 윤치영 ㊽

獨立促成協議會

李博士가구상한 汎國民的협의회

開會때 "뭉치면살고…" 團結호소

李承晩박사의 還國은 나 개인에게는 물론 左翼의 극성스러운 운동에 힘겨운 대항을 하던 右翼진영에게는 百萬援軍이었다。 따라서 해방후의 右派정당중 가장 짜임새있고 능력있는 韓民黨은 李박사에게 적지않은 기대를 걸었다。 韓民黨이 李박사를 옹립하고 나선것은 그들이 교육수준도 높고 실질적으로 정권을 담당할 능력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최고지도자로 모실만한 光復운동의 최대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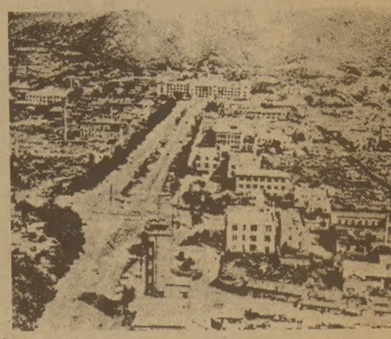
그러나 李박사는 한 정당의 옹립보다는 국민적합의를 바탕으로한 힘으로 建國을 실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韓民黨보다 각정당、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된 민족세력규합체의 필요성을 느끼고있었다。 이것이 李박사 還國일주일후에 표면화된 獨立促成中央協議會 즉「獨促」이다。 한때 李박사는 현실상 各派를 망라한 民族的인 이단체에 많은 기대를 걸고있었는데 李박사 옹립의 先手를 左翼에게 앗긴 韓民黨으로서는 李박사의 이러한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어쩔수 없었다。

해방과함께「建準」을 만든 呂運亨은 공산주의자들과함께 느닷없이 人民共和國을 멋대로急造하여還國도하지않은 李박사를 主席으로앉힌등 韓民黨보다 항상 정치적 布石을 먼저했었다。 이미 朴憲永의조정에의해 빨갛게 색칠해진「人共」은「전국人民委員」55명의 명단과함께 부주석 呂運亨、국무총리 許憲、서기장 李康國등도 발표했었다。

「人共」은 李박사가 還國한 다음날 환영담화를 발표하고 朝鮮호텔로 李박사를 찾아왔지만 난듣피곤하셔서 오래 면담하기가 곤란하다」고 따돌렸다。 그런데도「人共」은 李박사를 면담했다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지금와서 그 韓民黨을 생각하니 失笑를 금할수가없었다。

韓民黨의 변한없는지원과는 별도로「人共」의 끈질긴抗議에도 불구하고 李박사는 反蘇반공국을 통해 국민에게대한 귀국방송에서「이 중대한 시간에 나만 살겠다고 애쓰다가 민족전체를 못살게하는 일이 있어서는안된다。 나중에나 우리국민이 번영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해 左右어느쪽도 편들지 않았다。 李박사의 귀국첫방송때 내가 수행했는데 그후 나는 일주일에 한번씩 李박사대신 방송국 마이크를 잡고 李박사의뜻을 국민에게전하는일도 맡았다。

李박사의 超派的생각은「獨促」구상에서 나타났다。 李박사는 還國후 며칠동안 국내정세를 살핀뒤에「각계각층을 모아 협의할 생각이었다」는의견을 밝혔고 이에따라 10월23일 숙소인 朝鮮호텔 別室에는 韓民黨、「人共」系는 물론 사회각계각층의 대표 2백여명이 모였다。



◇8·15후 이땅은 政黨·사회단체의 亂立속에 政治熱風이 휘몰아쳤다。 사진은 해방직후 서울 市街의 모습。

이자리에서 내가먼저 모임의 취지를설명하자 李박사는 웃으며「오실분은 다 오셨는냐」고 서두를꺼냈다。 李박사는 이어 유명한「뭉치면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며「獨促이후 수난으로 이어온 나라를구하고 주권을 되찾기위해「獨促」을 구성하자」는 뜻을 밝혔는데 그후 李박사는 素武臺시절에도 자주「뭉치면…」이란 말을 사용한 기억이 있다。 이날의 조선호텔에는 朴憲永 李康國등과함께 呂運亨도 왔었는데 나는 李陽을보자「李陽、부주석이 뭐말라비틀어진 부주석이요」라고 面前詰難을 한기억이있다。

어쨌든 이날의 모임에서는 새국가건설을 위한 기탄없는 의견이 오갔고 마침내「獨促」이라는 통일기관을 설치키로하고 李박사에게 결성소집일자와 人選등 모든것을 위임키로했다。 당시 신문기자의 70%정도가 左傾化되어 右翼은 몇개를 얘기해도 한개정도만 신문에 실리나 左翼이 한개를 얘기하면 10개나 보도되는 실정에서 李박사가「獨促」이란 통일기관을 맡게된것은 李박사의 독립운동에관한 名聲이 나역량이 모두를 압도했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이틀뒤인 10월25일 당시 정치단체의 집회장으로 자주 이용되던 天道敎강당에서 가진「獨促」결성대회장은 1천여명의 각계대표가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李박사를 총재로 추대하는 안건외에는 사사건건 시비가 일어났다。 左派의 방해때문이었다。 呂運亨、洪命熹등이 수십명의 左派청년들을 동원、안건이 상정될때마다 반대발언을하고『않으란』는 중용이 있으면 또 다른곳에서『의장/ 할말이있소』라는 식이었다。

그때문에 결성대회장은 난장판이 되어버렸는데 지금와서 생각하면 그때 右翼청년들을 동원、이들을 몰아 내지못한것이 한스럽다。 결성대회는 결론없이 끝나고 그후 左翼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獨促」의 진용을 갖췄으나 各政黨과 政派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노려「獨促」활동을 사실상 외면했기 때문에 李박사도「獨促」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獨促」은 2차례의 회의와 美·蘇양국에 메시지발송을 끝으로 月餘만에 短命하고 말았다。

고포특별우대…언제든지 20%할인…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 오 선물센터
TIE CITY Square One 275-2187 (Hwy 10, Burnhamthorpe)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Yonge, Bloor St)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Bay, Yonge, King St)

NIPPON VIDEO CENTRE
일본비데오센터
많은 한국테프가 새로 들어왔읍니다
주6일 OPEN
1993 DANFORTH AVE. TOR.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우드바인 서쪽 1 block)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745-5485 미세스 황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식 중국음식 벵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불 광 사
지도법사: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참선지도)
주 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223-9152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 W. Tor. Tel: 961-311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416) 222-9480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 PM~4 AM
토~일: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977-9734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 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7PM

捜査경찰 年內 1,500명增員

治安本部계획 강력犯발생 신속대처

月 3萬원선 내근수당도 指紋판독기도입(42億) 鑑識현대화

치안본부는 수사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서울, 부산등 주요도시의 강력범죄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위해 「경찰수사력강화방안」을 9일 확정, 예산당국과 협의를 시작했다. 강화방안의 주요골자는 연내로 수사전담경찰관을 1천5~6백명정도 더 늘려 전문교육을 시킨후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 집중배치, 강력사건을 전담하도록 한다는것. 또 신속정확한 과학수사를위해 최신식자동지문판독기(대당가격42억원)와 레이저광선지문 채취기등도 도입키로했으며 일선경찰서의 내근수사전담취조 경찰관에게 월3만원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외근수사경찰의활동비도 월평균 1만원정도인상해줄방침이다. 경찰의 이같은 계획은 최근각종범죄가 날로 늘어날뿐만아니라 지능, 흉포 다양화해지고 있는데 수사경찰은 오히려 사기가떨어져 경험이많은 노련한수사관들이 경무, 정보등 다른부서로 빠져나가고 있기때문에 이에대처키 위해 취해진 것이다.

경찰내부에서는 최근들어 격변기를 거치면서 사회정화운동의 정착으로 수사과정에서 민원(民怨)이나 잡음의발생소지가 많은 수사계통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에따라 많은 수사경찰은 진급이 빠르고 비교적 잡음이없는 업무계통으로 전근을 희망하고있어 서울시경의 경우 일선경찰서 수사간부들을 한번기용하려면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는형편.

이때문에 현재의 수사경찰은 연조가 짧은 형사들이 대부분으로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자체평가까지 나와있다. 실제로 서울지검이 올해상반기중 서울시경과 산하 11개 일선경찰서에서 송치한사건 9만여건을 심리한결과 법률적용을 잘못했거나 증거보강없이 무리한수사끝에 부당하게 송치한것으로 밝혀진 사건이 10%를 넘는 1천3백28건에 달했다.

검찰이 지적한 부당처리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법률적용잘못이 6백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미진 3백49건 ▲재량권남용 19건 ▲업무태만 53건 ▲지시불이행 7건 ▲기타경미한 과오 2백37건등으로 나타났다.

또 일선경찰의 수사부서근무기피현상은 2~3일씩 집에못들어가는 격무에도 원인이 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서울S경찰서의 경우 수사과 정원이 90명이지만 그동안 정원을 채우지 못한채 운영해오다 최근 전경들로 유치장감시를 대체해 정원을겨우 채우고있다. 또 Y경찰서의 경우 형사47명가운데 초심자가 5명, 3년미만이 20여명으로 사실상 대부분이 강력사건등에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것.

치안본부는 이같은 수사력의 공백화 상태를 보완하기위해 수사요원대폭증원을 계기로 수사공조체제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경찰이 계획하고있는 수당지급과 최신식과학수사 기재도입은 결국 예산이뒤따라야할문제인데 자동지문판독기의 경우 불과 2~3년전부터 구미와 일본등지에서 사용하기시작한 최신식기계로 사람의10지(指)중 한손가락의 지문만 가지고도 3초안에 신원을 확인할수있는 고성능을 가졌으며 레이저광선 지문채취기는 지문의영상만으로도 지문을 채취할수있어 사건현장에 큰도움을 줄수있다는 것이다.

◇소슬바람…가을이 영근다 白露도 지나고, 대기중의 습기가 차가운 이슬로 변해 새벽의 대지를 적셔준다. 소슬바람속에 이미 잎이떨어지기 시작한 감나무가지는 탐스러운 열매들의 무게를 이기지못해 휘어 늘어졌다. 【경기高陽郡神道面=李昌淳기자】

近代化20年 무엇을 남겼나 — 심포지엄

心理的貧困해소가 큰 課題

급격한 富의 蓄積…分配구조 惡化 / 上向熱望좌절감 大衆사회로 확산 / 量的발전보다 平等실현 주력해야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말이있다. 남보다 뛰어나지는 못하더라도 남에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60년대이후 공업화·도시화가 가속됨에따라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게지내려는 국민의 사회적평등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커졌다. 高麗大 林熺燮교수는 10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政經文化」2백호기념 「근대화 20년의 평가와 과제」란 심포지엄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적평등」이란 주제발표를통해 공업화·도시화에따른 남부럽지않게사려는 국민의 사회적 기대감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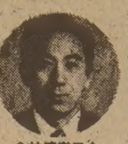
높은 성장률과 압축 팽창으로 특징지어지는 1960~70년대의 경제발전은 공업화·도시화로 급속하고도 심대한 사회구조적 변동을 일으켰다.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농업사회, 농촌사회로서의 특징을 버리고 공업사회, 도시사회의 사회구조로 탈바꿈해버린 것이다.

공업화는 직업구조의 변화,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으로 인한 도시화의 가속, 인구및 계층구조의 일대변화를 일으켰다. 농촌 과잉인구의 일방적 유입에 의한 60~70년대의 도시화도 지나치게 빠른속도로 진행돼 대도시의 과밀, 지방도시의 상대적인 침체, 도시에 있어서의 빈곤층 형성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이같은 빠른 템포의 공업화및 도시화는 인구및 가족구조, 가치관등 전반적인 영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것과 함께 계층구조에도 커다란 개편의 소용돌이를 몰고왔다.

조선조와 일제때의 계층구조는 주로 토지의 소유관계에의해 결정지어졌다. 그러나 해방후 농지개혁에의해 토지소유관계에 변화가 일어났고 60년대이후 공업화와 전문·관리직, 기술직·사무직등이 확대 등장되며 비교적 높은교육수준을 지닌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됐다. 이와함께 급속한 도시화에의해 농민의 상당한비율이 도시에서 판매직·노동직·서비스직 ……으로 전환, 계층구조상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것이다.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를 알아볼수있는 정확한자료는 없으나 계층구조를 직업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문직·기술직·관리·행정직으로 구성되는 약 4%의 가구가 상층계급을 이루고, 사무·판매·서비스직의 25%의 가구가 중산층, 나머지 농업과 생산직의 약 70%의 가구가 하층계급을 구성한다는 피라미드형구조이다.



◇林熺燮교수

林熺燮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계층 구조는 60년대 중반에 상층7%, 중산층 24%, 하층 47%였고 70년대 후반에는 중산층이 하층보다 비율이 더 큰 다이어먼드형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처럼 중산층이 확대됐으나 우리나라 중산층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약하고, 하층계급에 대해 빈곤층이 상당히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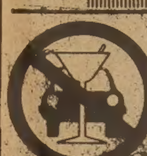
우리나라 절대빈곤층은 65년엔 전인구의 41%였으나 78년에는 12%로 감소됐다. 이 12%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빼면 7%에 불과하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성취함에따라 절대빈곤층이 주는대신 등장하는것이 상대적 빈곤과 심리적 빈곤이다. 사회에의 기대와 현실의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이 대중사이에 확산되게 마련이다. 상대적 빈곤은 분배구조의 악화로 필요인이다.

소득분배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5·16후 고리채정리를 주로 비경제적인 원인에의해 평등한 구조를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분배구조가 악화됨에따라 대중의 상대적 빈곤의식과 사회적 불평등의식을 심화시켰다. 특히 부유층의 富의 축적과정이 정부의 고도성장정책에 의한 특혜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이것은 60~70년대의 경제발전이 주로 불균형확대를 추구했던 결과이며 또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 반드시 사회평등의 조건을개선해 주는것이 아니라는점을 보여주고있다. 60~70년대의 대중들의 上昇기대에의 열망은단순히 물질적 생활조건의 향상을 추구한것보다는 사회적 上向移動의 열망이 더욱 비중을 차지하고있다고 말할수있다. 그와 같은 열망은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 빈곤속에서도 철야하는 成就동기, 근로의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중의 사회적지위의 상향이동열망을 충족시킬수있는 사회이동의 경로는 교육을 통한 경로와 소규모自營業을 통한 경로로 대별되나 교육마저도 계층간 지역간에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적 불균형의 조건과 그로인한 사회적 불평등의식이 심화하여 대중들은 80년대 한국사회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남겨주었다. 80년대의 한국사회는 적정한 수준의 성장과 함께 평등의 실현을 균형있게추구, 사회구조의 질적 개선을 이룰때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발전 전환기에 서있다고 생각된다. 【旦】



保健女職員 殺害犯 택시運轉士에 令狀

【淸州=聯】충북報恩郡懷南면사무소보건직원 吳英熙양(30)의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충북도경수사과는 9일 충북1바7534호 개인택시운전사 李圭福씨(33)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강도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李가 범행때 사용한 피묻은 쇠망치와 吳양의 핸드백등 소지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吳양은 지난달10일부터 서울한국인구 보건연구원에서 실시된 가족계획교육을 마치고 근무처인 懷南면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범인 李는 경찰에서 추석비용을 마련하기위해 吳양이 돈을 많이갖고있는것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福夫人 아트트投機 捜査집중 관련

【釜山=聯】속보=부산시北區華明洞 住公임대아파트 복부인투기사건을 수사중인 부산北部경찰서는 9일 50여동의 아파트당첨권을가진 金玉子씨(30·경기도安養市石水1洞570)가 釜山에 거주하는 언니 金貞愛씨(48·부산影島區南港洞1가157)와 사전에 공모, 계획적으로 투기를 한사실을밝혀내고 金씨 자매와 許順男씨(36·경기도安養市)등 3명의 복부인들의 신병을 확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소피아·로렌 魅力은 어디에

굿·하우스키핑誌 男優들 의견 소개

풍만한 야성미로 세계의 영화팬을 사로잡은 소피아·로렌. 수많은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여 「세기의 스타」로 자리한 그는 이미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그의 젊음과 매력은 아직도 싱싱하다. 소피아·로렌의 매력은 어디에 있고 무엇이 그를 「만인의 스타」로 만들었는가. 그레고리·펙, 폴·뉴먼, 리처드·버튼등 그와 공연한 유명男優들이 소피아·로렌의 매력을 말한다.

◇소피아·로렌

7人의 남성배우들이 굿·하우스키핑誌(근착)에 털어놓은 「소피아·로렌을 사랑하는 이유」를 간추려 소개한다.

■아라베스크에서 공연한 그레고리·펙=소피아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다. 그는 나를 술독에서 구출해 주었다. 그는 매우 야성적이고 활동적이다. ……

海外연예話題

그레고리·펙 "野性美 있고 活動的이다"

오마·샤리프 "그女子는 큰입에 매력있어"

리처드·버튼 "때로는 차갑고 理智 넘쳐"

◇美MGM사가 1910년 제작한영화 백조의 로케현장인 노드캐롤라이나州 애슈빌에서 그레이스·켈리가 이영화에 나오는 백조한마리와 포즈를 취하고있다. 백조는 그레이스·켈리가 출연한 첫번째영화로 그녀는 나중 이영화의 극중역할과같이 왕족이됐다. 【키스턴=聯】

東支那海上서 상어잡이漁船 실종 어부12명 生死몰라

【釜山=聯】부산수협 원양상어업협회는 9일 동지나해상에서조업중 제18호 태풍애그니스를 만나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중이라고 지난1일 부산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타전해왔던 동협회소속 상어 유자망어선 제8금영호(69톤·선장 김기홍·57)가 선원12명을 태운채 완전히실종된 것으로 보고 수색작업을 해경에 의뢰했다.

제8금영호는 지난1일 사고해역에서 조업하다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라고 구조요청을 타전해온뒤 연락이 끊겼었다.

원양상어협은 그동안 제8금영호와 같은회사 소속인 제2금영호(40톤) 제성호(65톤)등 5척에 사고해역을 수색하도록 지시, 이들이 이해역을 수색하다 찾지못하고 지난7일 부산항에 귀항하자 실종된것으로 단정했다.

한편 상어업협회는 부산西區忠武洞5가 공동어시장 2층 사무실에 임시대책본부를 설치, 사후수습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명단은 다음과같다.

▲선장 김기홍(57·부산영도구봉래동4의59) ▲기관장 ……

公務員복장 개인趣向대로

總務處지시 個性살리고 業務편리하게

정부는 9일 계절에따라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복장을 일률적으로 통일해온 지금까지의 공무원복장착용방식을바꾸어 앞으로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복장을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자유로이 선택, 착용토록「공무원복장착용지침」을각부처에 보냈다.

총무처는 이날 그동안 공무원사회에서는 흰색노타이나 넥타이를 매는 正裝만이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는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아 …… 공무수행에 불편을 주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등 불합리한점이 적지않았다고 지적, 앞으로 자유스러운 근무분위기조성과 업무수행의 편의를위해 점퍼, 콤비등 단정하고 검소하며 능동적인 복장을 각자가 자유스럽게 선택, 착용토록 권장했다. 그러나 공식행사나 의전행사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장을착용하도록 하고 경찰등 제복착용공무원들은 이번 복장자유화조치에서 제외했다.

全北 교육감에 柳在新씨 선출

전북교육위원회는 9일 신임교육감으로 柳在新전주고등학교장을 선출, 문교부에 승인요청했다.

池弘昌박사別世

61년부터 70년까지 대통령주치의를지냈던 池弘昌박사가 9일상오5시 서울江南區鴨鷗亭洞현대아파트13棟503號 자택에서 급환으로별세했다. 향년61세. 우리나라에 종두접종을 최초로도입한 池錫永선생의 장손이기도한 池박사는 유족으로 미망인 郭炳賢여사와3남2녀를남겼다.

糧穀전달·無料진료 全南재해본부 공군부대서 방문

공군제3252부대는 지난8일 전남재해대책본부를 방문, 양곡50가마를 전달하고 긴급의료반을 전남 光山郡大村面의 침수마을에보내 주민1천여명을 진료했다.

고개내밀던 차멀미 승객 맞은편車에 부딪쳐 死亡

【裡里=聯】8일 하오 5시45분께 裡里市新龍洞 남강석재앞길에서 裡里新興여객 소속 전북5자2006호 시내버스(운전사 林승훈·31)를 타고가던 龔수일군(18·裡里농고3년)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차멀미를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한일종합고교소속(운전사 高종배·26)스쿨버스에머리를부딪쳐숨졌다.

趙治勳名人 방어전 가또9段과 첫對局

【東京=宋孝彬특파원】名人과 本因坊등 2대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趙治勳9단(25)이 名人타이틀을 지키기위한 첫방어전에 들어갔다. 9일 상오9시 東京시부야(澁谷)의 하네자와(羽澤)가든 호텔에서 열린 제6기 名人戰도전7번기의 도전자는 王座位와 天元位를 갖고있는 가또·마사오(加藤正夫·34) 9단.

이날의 제1국은 黑을쥔 가또9단이 黑1花點, 黑3小目으로 펼치자 執白의 趙名人이 白2·4를 向小目으로 전개, 지구전의 양상으로 맞섰다. 이대국의 결과는 10일하오늦게 판명될예정.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각종 웨곤(WAGON)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Kabuki JAPANESE STEAK HOUSE

"In a class by itself"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Reservations accepted

STORE HOURS
평 일:
스페샬점심시간
11:45AM~2:30PM
5:00P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GREAT CHINA HERBS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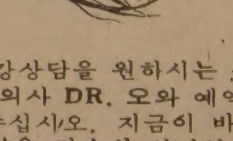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薬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OPEN : WEDNESDAY
CLOSE : TUESDAY
*영업시간 : 9:00AM~9:00PM

977-8858~9